

#1>



WICHMANN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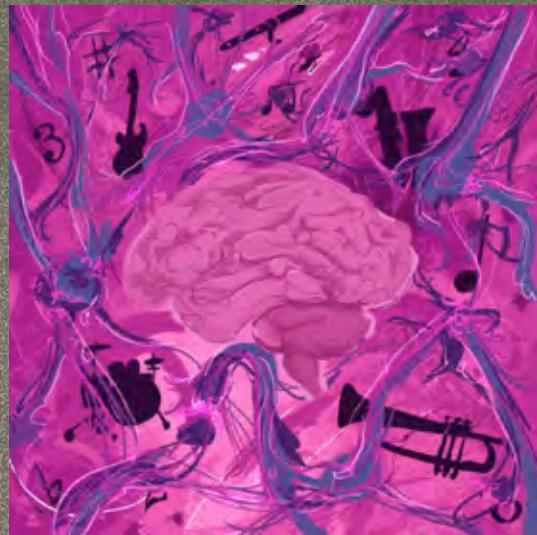




DREAMDROPDRAGON - AKAI SOLO

2024.10.25 / 감상주의

음악을 통해 예술가의 철학과 지혜를 듣고 납득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해가는 과정은 늘 재밌다. 그 과정은 종종 우연과 즉흥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강박과 교조를 동반하면서까지, 지혜를 탐색하고 체화하며, 최대한 다수에게 전파하여 한뜻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도 있다. 이는 얼마나 세상에 관심이 많고, 삶을 진지하게 여기는지에 따른 것일 터. 아카이 솔로(AKAI SOLO)는 전형적인 후자의 인물이다. 고백과 훈계 사이에 있는 의식의 흐름 수사법에는 전달하려는 바가 일관되고 명확하다. 추상적인 프로덕션은 어디까지나 전달을 위한 수단이다. <DREAMDROPDRAGON>도 여지없이 그렇다. 지식에 바탕이 된 이론가들의 자료를 인트로 샘플로 사용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그의 성찰은 지혜의 '축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기껏 애써왔던 축적들에 회의를 품거나 일부 무너지고 만 것에 대한 '재정립'이라고 해야겠다. 물론 이 또한 그에겐 깨달음과 나아감을 위한 재료이다. 재료의 가공 또한 여전히 그의 방식 그대로이다. 물론 유쾌함을 담당하던 기존의 일본 서브컬처 레퍼런스는 사라지고 "Who Up Next???" 등으로 하여금 장르적 변용을 새롭게 시도했지만 말이다. 이번에는 목적성을 내려놓고 불가피한 표류와 실존적인 고뇌에 할애했다. 중요한 것은 혼란을 거치고 난 뒤 그의 태도와 다음 이야기가 될 것이다.



i made this and i like it, i hope you like it to, but if not that is ok, music is subjective - CALUP

2024.10.25 / 자카

익스페리멘탈 힙합 아티스트이자, 동시에 AOTY 웹사이트의 네임드 유저로서 더 잘 알려진 칼럽(CALUP)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예고해오던 대망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00자에 가까운 어지러운 제목처럼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여러 장르가 뒤섞인 음악을 선보이는데 — 그 조화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개성 있게 잘 어우러진다. 본작은 익스페리멘탈 힙합과 사이키델릭한 클라우드 랩, 그리고 전자음악을 뒤섞어 여러 스타일이 혼재한 혼란스러운 구성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럽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통일성을 유지해나가며 앨범을 전개해 나간다. "My humor isn't unfunny it's just meta"와 같은 많은 트랙들에서 보여준 그의 유머 감각은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며, "There is a lot of people on this song wow"와 같은 트랙들에서 중독성 있는 빠른 템포의 래핑은 앨범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물론 앨범이 후반부로 치달을 수록 기복이 드러나긴 하지만, 언더의 아마추어 아티스트로부터 이 정도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본작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트랙 제목들로 장난치는 게 다소 유치해 보이긴 한다만,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칼럽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CADAVER - BONES

2024.10.31 / SONGCHICO

본즈(BONES)도 어느덧 데뷔 10년차를 훌쩍 지나, 이제는 심심찮게 은퇴설에 휩싸이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의 커리어와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겠지만, 최근 몇 년 간 본즈가 보인 행보는 그저 훌륭한 커리어를 흡집 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가까웠다. 또한, 작년과 올해 발매한 <The Witch & The Wizard>와 <Modern Architecture>에선 다른 장르와 자신의 주 장르인 클라우드 랩을 함께 선보이기도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본즈가 본작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에 힌트를 얻은 곳은 올해 1월에 발매한 <.ZIP>이었다. 해당 작품에서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 이모 랩과 클라우드 랩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혁신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었다. <.ZIP>이 '클래식 본즈'를 소환했던 것처럼, 본작은 <Useless>, <Creep> 등을 발매했던 'Phonk 본즈'의 시기로 시계태엽을 감는다. 호러코어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로 돌아간 본즈는 드디어 보컬과 프로덕션, 양방면에서 모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갖게 되었다. 특히나, 분노와 우울의 감정상태를 오가며 진행되는 중후반부에서는 분위기에 맞춰 등장하는 본즈의 벌스들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커리어가 정체된 아티스트들이 이따금씩 자신의 필살기를 꺼내 상황을 타개하는 경우는 익숙하지만, 그 아티스트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본즈라는 사실이 차별점을 만든다.

11 - Westside Gunn

2024.10.31 / moogsick

데뷔 이래로 웨스트사이드 건(Westside Gunn)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는 'Hitler Wears Hermes' 시리즈였다. 이는 독특하면서도 미감이 뛰어난 아트워크와 10년을 이은 넘버링으로 어느새 상징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이러한 기조에 변동이 관측된 작품은 <10>부터다. <Hitler Wears Hermes 8: Side B>를 9편이라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타이틀 자체를 떼어낸 네이밍, 웨스트사이드 건이나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는 커버는 분명 그전과 달랐다. 이어 <Still Praying>의 전초전 격으로 내놓은 <11>은 헤리티지를 다시금 깨는 모습이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5곡 16분이라는 짧은 볼륨이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이 내레이션과 보이스 메일임을 감안하면 실제 러닝타임은 그보다 짧다고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협업해 왔던 프로듀서 Denny Laflare의 비트, 웨스트사이드 건의 랩 모두 준수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결코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다. "Devil In A New Dress" 혹은 "Big Ass Bracelet"을 연상케 하는 소울 샘플링 인트로 "BIG DUMP BALLAD"는 훌륭한 시작에 비해 랩은 1분 30초 남짓에 불과해 맥이 빠진다. 음산한 루프의 "CAIN TEJADA"도 마찬가지다. 다른 앨범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겠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작의 종언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DAROLD - A\$AP Ferg

2024.11.08 / 자카

지난 4년의 공백기 동안 에이셉 퍼그(A\$AP Ferg)는 레이블과의 마찰을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새로운 정규 앨범 <DAROLD>에서 그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개인적인 불화들과 고충,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전하는 교훈을 담은 래핑을 내뱉는다. 항상 장난스러웠던 그가 성공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이면들에 완전히 매몰되어 지친 한 남자로 그려지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꺼내놓는다는 점은 신기할 정도이다. 허나 <DAROLD>의 단점은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Dead Homies"와 "Pool"을 비롯한 큰 울림을 주는 트랙들도 여러 있으나, 대부분 밋밋한 비트에 어색한 에이셉 퍼그의 플로우가 충돌하며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또한 모든 트랙들이 비슷한 사운드로 이루어져 있어 40분의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앨범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의 가벼웠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시도는 인상적이다. <DAROLD>는 구성이 다소 산만하고, 또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은 아니지만 훗날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들을 보여주느냐에 달렸다.



re:wired - kuru

2024.11.08 /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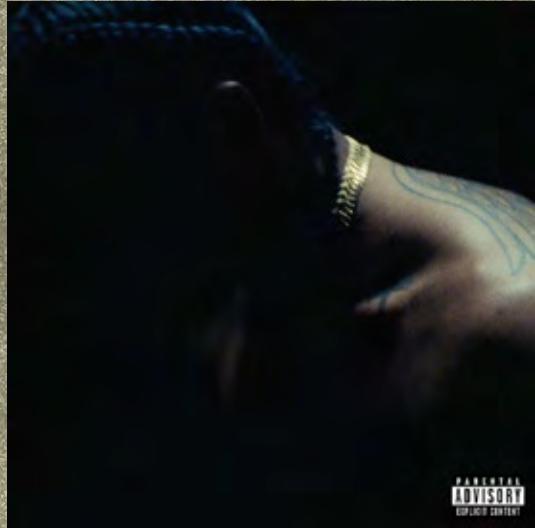
쿠루(kuru)의 데뷔 앨범 <re:wired>는 디지코어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장르에 여러 실험적인 사운드들을 조화롭게 담아내려고 한 시도가 돋보이는데, Jane Remover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iheartu2" 등 다양한 트랙들이 그 특유의 질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큰 인상을 준다. 그러나 앨범 구성이 다소 늘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웠다. 초반부 트랙들의 흐름은 다소 어색한 지점들이 존재하며, 쿠루의 플로우 역시 비트에 잘 맞물리지 못하고 산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레이지 스타일을 차용한 곡들은 굉장히 단조롭게 전개되고 있어 전체적인 앨범의 완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쿠루의 데뷔 앨범은 그의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야망과 잠재력을 담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앨범의 구성과 완성도로 그 노력들이 조금 퇴색된 작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본작에는 2024년 디지코어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선한 트랙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으니, 이 음반에 46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일도 그리 아깝지는 않다.



Saaheem - SahBabii

2024.11.08 / 자카

사바비(SahBabii)는 그의 음악에서 항상 황당하고 엉뚱한 매력을 풍겼다. 그러나 2021년 절친 DemonChild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는 장난기를 조금 덜어낸 채 진정성을 음악에 담아내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앨범 <Saaheem>에서도 장난과 자기 성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Viking"에서 그는 Playboi Carti와 Young Thug을 오마주한 랩을 내뱉고, "Everyday"에서는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을 저울질하며, "Save iT 4 Me Babii"에서는 다소 음탕하지만 치명적인 유머 감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매력은 스타일리시한 프로덕션 덕에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전작들의 아쉬웠던 보컬 믹싱이 훨씬 개선되어 있는 본작은 드럼을 전면에 내세워 앨범 전반에서 뛰어난 비트들을 선보인다. 환각적인 신스 리프와 농후한 808 사운드, 강렬한 스네어와 하이햇 등이 사바비의 랩과 어우러져 인상적인 순간들을 여럿 남긴다. <Saaheem>은 사바비가 너무나도 솔직해졌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던 작품이다. 항상 익살스러운 줄만 알았던 그에게도 이토록 진중한 모습들이 숨어있었으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스물일곱의 예술가는 너무 치명적으로 보일 뿐이다.



Soul Burger - Ab-Soul

2024.11.08 / 자카

앱소울(Ab-Soul)의 음악적 행보는 쉬이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매 앨범마다 Black Hippy 시절의 GANGSTER 랩, 정통 트랩, 또는 앱스트랙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간 음악들을 선보이며 리스너들에게 항상 다채로운 음악들을 선사해 주었다. 그의 새로운 믹스테입, <Soul Burger>에서 그는 다시금 다양한 장르들과 스타일을 엮은 음악을 선보이는데, 본작은 다소 이질적일 만큼 그 요소들이 융합되지 못하고 흩뿌려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프너 "Nine Mile"의 영화 <8 Mile>을 패러디한 독특한 시도와 그의 자아비판적인 가사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Payday"의 중반부에 삽입된 EDM은 곡의 흐름을 끊어버리기만 한다. 이처럼 앨범에 존재하는 여러 시도들이 제대로 섞이고 융합되지 못해, "Crazier"에서 보여준 JID 와의 훌륭한 래핑도 쉽사리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다. <Soul Burger>에는 여전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나 재미있는 순간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채 멋진 결과물만이 탄생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다.

FULL REVIEW





어둠 속에 완전히 침몰되어버린 디스토피아, 심연까지 가라앉는 끔찍한 악몽들과 우울, 단지 파괴스럽다 못해 갈비뼈를 산산조각 내는 폭력적인 사운드.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는 단순 '음악'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다채로운 우울감과 파괴의 파편들이 집약된 카오스이다. 앨범을 듣는 우리는 서로를 물고뜯는 14곡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허리케인에 휩쓸려 길을 잊으며, 어둠과 파괴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이곳저곳을 끌려다닌다. 이 갑작스레 등장한, 이 신예답지 않은 신예의 악마 같은 작품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며 청자에게 크나큰 후유증을 선사한다.

올해의 문제작 <AND THEY MINE FOR OUR BODIES>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고의 주인공이자 이 끔찍한 혼돈 속 정중앙에 서있는 문제아 가오 더 아서니스트(Gao the Arsonist)가 누구인지 한 차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서니스트는 여러 우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뒤 이를 최대한 어둡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음악가이다. 그는 전작 <FORENSICS>에서 한 차례 자신에 대한 증명이자, 일종의 '선포'를 마친 바 있다. <FORENSICS>는 정치성과 문화적 뿌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과 고립감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Earl Sweatshirt의 날카로운 워드 플레이와 JID와 Danny Brown을 오가는 다양한 랩 스타일, JPEGMAFIA의 유려한 프로듀싱 역량을 모두 머금고 있는 그는 데뷔 앨범에서부터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과 개성을 확실히 어필하며 지난 10년을 통틀어보아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자기소개를 마쳤다.

그렇다면 아서니스트의 3년을 모두 쓸어부은 새로운 정규 앨범,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는 전작에서 보여준 메시지의 연장선이자 그를 한층 더 확장하고 심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욱 과감해진 그의 음악적 실험들은 가히 혁신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격적인 순간들이 비일비재하고, 전체적인 앨범의 세계관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극단적으로 구축된 감정선은 리스너들을 괴롭히며 탈출구 없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만든다.

본작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운 프로덕션에 있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에서 아서니스트는 공포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호러코어(Horrorcore) 장르와 밀접된 텍스처, 그리고 노이즈를 선택해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오프너 “PAROUSIA”의 불규칙적인 형태로 피어오르는 보랏빛 연기 같은 사운드나 “INSOMANIA”의 마구잡이로 몰아치는 드럼은 피를 토하는 듯한 아서니스트의 랩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심리적 압박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PHANTASM의 자기 파괴적이고 서늘한 신스 리프는 한층 더 무거운 방법으로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본작에 내지되어있는 모든 악기들과 사운드들은 청자들에게 끔찍함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덩어리들이며, 동시에 아서니스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우울이 한층 더 강력하게 표현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 - Gao the Arsonist

2024.10.18 / 자카

1. PAROUSIA / 2. HORSESHOE / 3. TRENCHFOOT / 4. WITNESS
- / 5. GUNSLINGER / 6. SHARKFIN / 7. INSOMANIA / 8. RIGHT BETWEEN THE EYES / 9. UNORTHODOX with NotNevi / 10. TOOTHJAR / 11. FIRMAMENT / 12. CHRONOKILL / 13. DO AS I SAY
- / 14. PHANTASM



또한 앨범의 단점 아닌 단점인, 다소 조잡하게 느껴지는 막상마저 본작이 갖고 있는 본작만의 색깔을 양껏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는 너무 극단적으로 사운드가 설계된 나머지 곡의 멜로디나 리듬이 다소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TRENCHFOOT”이나 “DO AS I SAY” 같은 트랙들은 그로 인해 곡의 정체성이 다소 흐려진 트랙들이다. 하지만 이런 점조차도 본작에서는 앨범의 의도된 혼란과 불안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곤 한다. 깔끔하게 다져진 사운드가 아닌, 오히려 본작에 더 잘 어울리는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사운드를 담아냄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메시지와 감정선을 전달하는 것이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는 강렬한 메시지와 세심하게 설계된 사운드스케이프를 자랑하는 올해 가장 독보적인 감상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이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악동의 매분 매초는 청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이 14개의 트랙들은 살아 움직이며 불편함과 몰입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또한 아서니스트는 본작에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스타일의 음악들은 선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유망하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인지 다시금 입증해 내었다. 이 어둡고 끔찍한, 우울에게 바치는 사운드트랙은 42분간 폭주하며 잊지 못할 기억과 흔적들을 선사한다. 단연코 올해 최고의 발견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를 통해 언더 씬에서 나름의 주목을 얻은 아서니스트. 정말로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의 제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CHROMAKOPIA

TYLER, THE CREATOR



CHROMAKOPIA - Tyler, the Creator

2024.10.28 / 김아일

1. St. Chroma (feat. Daniel Caesar) / 2. Rah Tah Tah / 3. Noid / 4. Darling, I (feat. Teezo Touchdown) / 5. Hey Jane / 6. I Killed You / 7. Judge Judy / 8. Stick (feat. GloRilla, Sexy Redd & Lil Wayne) / 9. Take Your Mask Off / 10. Tomorrow / 11. Thought I Was Dead (feat. Schoolboy Q & Santigold) / 12. Like Him (feat. Lola Young) / 13. Balloon (feat. DoeChii) / 14. I Hope You Find Your Way Home

0. “이번 앨범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던 내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 ‘뭐야, 그 누구도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의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결국 나온 앨범은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들을 받아들이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됐더라고. 알잖아. 나도 이제 서른 세 살이 되었거든. 이 앨범의 이야기들은 마치 ‘아, 엄마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스무 살 때의 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아네.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친구들은 애도 낳고, 가족도 생기고 하는데 내가 가진 건 신상 페라리 한 대 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느낌이야. 그것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여하튼 요즘엔 막 몸무게도 늘고, 이젠 가슴에 흰 털도 나기 시작해. 산다는 게 그런 거겠지 뭐. 모르겠어, 나도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혼자하던 생각을 나누고 싶었었나봐.” —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 2024. 10. 27. LA. <CHROMAKOPIA> 리스닝 파티에서

1-1. A\$AP Rocky가 예고한 앨범을 결국 미뤄버리고 말았을 때, Playboi Carti가 끝끝내 싱글 하나만을 투척하고 다시 영원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을 때, Kanye West가 기약없는 새 앨범을 예고했을 때. 대부분의 음악 커뮤니티엔 기대감보다 늑진한 피로감만이 감돌아 서로가 서로를 자조하거나, 의미없는 불평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기대조차 꺼버린 이들의 무관심이 의견의 다수를 형성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10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의 앨범이 나온다고 굳게 믿던 대부분은 그냥 희망을 버리거나, 거의 광신도의 몰골을 하곤 남은 두 달에 자신의 인생을 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인터넷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런데 딱 그 참에, 다른 이도 아닌 타일러의 유튜브 트래픽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다. 인터넷은 화면 가득 희한한 가면을 쓰고 선 남자의 영상 하나 때문에 우선 당혹스러워 하다가 급기야 거의 광기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거물급' 아티스트의 신보가 발매된다는 흥분 때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드 디스크에 타일러의 곡들을 수없이 백업해둔 '진짜' 골수팬들은 이 일대 '갑작스런' 컴백에 심란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사태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괴상했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이야기해보자. 타일러는 그 스스로가 철썩같이 지키던 '홀수 해 발매 법칙'을 깨뜨렸으며, <Flower Boy> 때부터 이어져오던 따뜻한 질감의 7음계 멜로우 분위기를 프로그레시브 록과 아프로 비트로 전환시킨 듯이 보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빈틈없이 지켜왔던 이 '의식'을, 창작자의 입장에서 내팽개쳐둔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담론은 정신 분석학적 영역으로 다시 넘어간다. 한편으론 그것이 가장 <CHROMAKOPIA>에 걸맞는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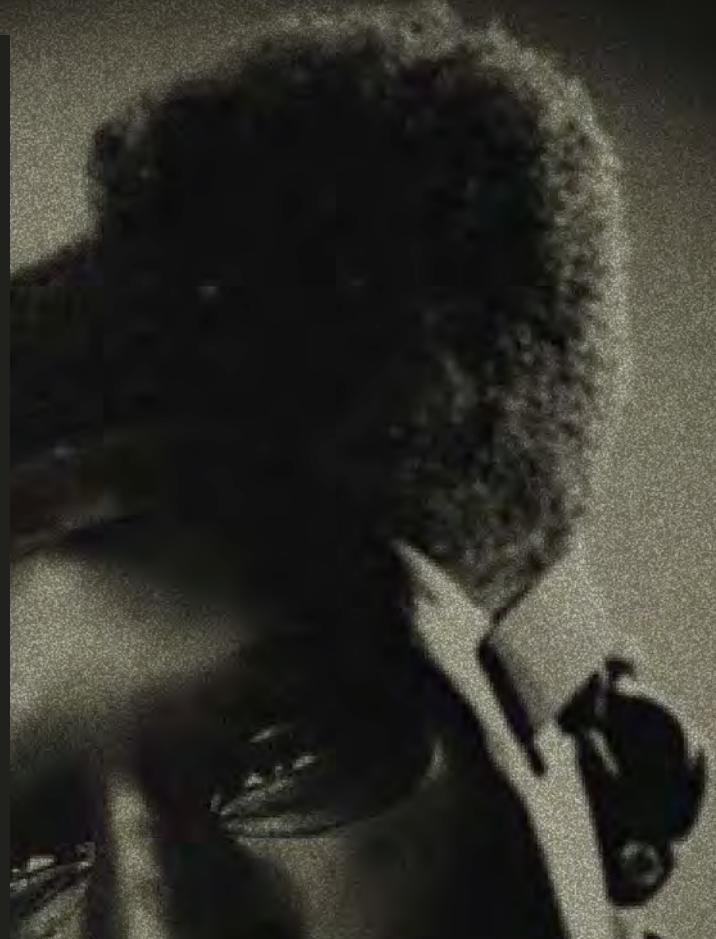
1-2. 하나의 물음을 시작할 수 있다. 타일러에게 홀수 해 법칙과 멜로우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일단 우리들은 그 변화에 매우 동요했다. 게다가 — 앨범이 발매되고 난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 타일러는 믹스테입 시절부터 꾸준히 넣어오던 10번 트랙 속의 슬래시를 빼버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엔 15년이라는 시간이 혼잡하게 얹매여있다. 그 15년은 어디에 얹매여있던 걸까. 타일러의 변화는 너무나도 총체적이고 또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어쩌면 그의 변화 자체에 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확실히 <CALL ME IF YOU GET LOST>의 끝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끝장내버리려는 기조와 분위기를 구태여 만들지 않았다. 6집에서 'SAFARI'는 <Blonde>가 "Futura Free"에서 발휘한 앨범 초월의 암시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 앨범을 따사롭고 여유롭게 끝맺었다. 반면 하나의 실마리는 <CALL ME IF YOU GET LOST: The Estate Sale>의 발매이다. 'SORRY NOT SORRY'의 뮤직비디오에서 상의를 벗고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한 타일러는 자신의 무수한 얼터 에고들을 갈기갈기 도륙낸다. 우리는 그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지닌 남자의 얼터 에고 이름을 궁금해하고, 그 남자를 축으로 한 새 앨범의 발매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남자가 '진짜' 타일러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은 'SORRY NOT SORRY'의 뮤직비디오가 일종의 "Futura Free"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ST. CHROMA"의 갑작스런 등장은 당초에 제시된 일련의 예견들을 모두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쉴 때도 되었다'며 2023년의 공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들에게 영리한 내기를 건다. 우린 걱정하거나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앨범에 관한 무수한 기대와 흥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 공개된 <CHROMAKOPIA>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게 만든다. 이 앨범엔 우리가 찾거나 기대하던 — 또는 실망스러울 것으로 예상하던 — 음악이 없다. 우리들은 이 '다재다능한' '천재' 아티스트가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선 실망하고 그 다음엔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이 아티스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아서 우선 판단을 유보하거나 '과도 기적 앨범'이라는 포장을 써워버렸다. 한편 그 반대편엔 <Flower Boy>의 따뜻한 신스 질감을 신봉하는 이들이 우두커니 서서는 무턱대고 <CHROMAKOPIA>를 호평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앨범 속에 예견되던 "St. Chroma", "Noid"식 휘휘한 아프로 분위기 대신 7음계 화성 바탕 멜로우 비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앨범은 호평하는 쪽이건 아쉬워하는 쪽이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견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기대와, 의심과, 회의와, 안도감의 근원은 "St. Chroma"와 "Noid", "Thought I Was Dead"가 보여준 그 흐릿한 얼터에 있고, 그리고 음악 그 자체에 있다. 성 크로마, 휘휘하며 모던한 흑백의 영상, 폭발하는 드럼, Ngozi Family. 사실 앨범이 공개된 직후부터 필자는 선공개된 곡들이 굉장히 이상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Noid"와 "Thought I Was Dead"의 심드렁한 아프로 분위기, 전작들을 아득히 상회할 정도의 색소폰 활용, 애시드 재즈의 융화는 "Darling, I'"나 "Take Your Mask Off", "Hey Jane" 같은 곡들을 전혀 설명하거나 예견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처음에 타일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타일러가 마케팅적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는 견해에 급격히 빠져들었다.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들이 그저 "Who Dat Boy", "LEMONHEAD", "LUMBERJACK"의 랩 위주 선공개 관행을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단정짓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문득, 일말의 전조도 없이, 정말 아무런 의도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에 서서히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2-1. 그 무서운 생각은 순전히 "Rah Tah Tah"에서 비롯되었다. 강조된 드럼과 폭발적인 박자를 지닌 이 곡은 인트로 "St. Chroma"와 핵심적인 "Noid"의 교두보 역할을하는데, 그 두 곡과는 기막힐 정도로 어우러지지 않는다. 필자는 "Rah Tah Tah"의 존재가 너무나 거슬렸다. 무엇보다 이 곡의 후반부는 '명록 상' 유기성을 위해 "Noid"와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이름 매가 타일러의 것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투박하고 어색해서 듣고 있자니 괴로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하나의 태도를 발견했다. 타일러가 유기성을 따지는 것이 어려워서 "St. Chroma"와 "Rah Tah Tah"를 붙여놓았을까? 또는 "Judge Judy"와 "Take Your Mask Off" 사이의 그 불명료하고 혼란스러운 "Sticky"의 존재가 기획의 실패로 빚어진 것일까? 타일러의 음악을 오래 들어온 이들이라면 알테지만, 타일러는 앨범의 구조를 경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집착적인 편에 속한다. <IGOR>는 단순히 변칙적인 멜로디 주제의 발전과 복잡다단한 사운드스케이프로 경지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CHROMAKOPIA>는 유기성을 못 챙기거나 의도적으로 망친 것이 아니라,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은 앨범인 것이다. 타일러는 그냥 이 앨범이 어떤 방식으로든 흐르도록 내버려두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다른 실마리는 구조적인 반복이다. 혹자는 타일러가 *<CHROMAKOPIA>*에서 그의 앨범 속 모든 구조를 뒤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예컨대 “CORSO”와 “Rah Tah Tah”는 두 앨범에서 하나의 짹패를 이룬다. 두 곡은 모두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이며, 인트로덕션 직후 강한 리듬과 함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랩 뱅어이다. 혹은 “See You Again”과 “WUSYANAME”, “Darling, I”은 각각의 앨범 4번째 트랙에서 멜로우 분위기로 연애 감정에 관해 고찰한다. 10번 트랙의 변화를 제외하면 유의미하게 뒤바뀐 것은 이전작들의 “Who Dat Boy”, “NEW MAGIC WAND”, “LUMBERJACK”을 잇는 폭력적 랩 뱅어 트랙인데, 그것들마저 “Sticky”와 “Thought I Was Dead”에 일정 부분씩 양도되었다. 다시 말해 *<CHROMAKOPIA>*의 앨범 구조나 음악은 전작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선공개 곡들에 한해서는 독특한 변화를 꾀했지만, “Boredom”이나 “GONE, GONE/ THANK YOU”, “I THOUGHT YOU WANTED TO DANCE”이 전해주는 7음계의 재지한 분위기는 “Take Your Mask Off”나 “Hey Jane”에서 선연히 살아숨쉰다. 물론 색소폰 솔로나 피아노 릭이 삽입되는 등 이전 작에 비해 기악 편성이나 세션 활용 능력이 풍부해지긴 했으나, 그것은 프로덕션의 발전이지 방향성의 격변이 아니다. 그 발전은 *<Flower Boy>*의 얼터너티브 알앤비 분위기가 *<IGOR>*의 평크와 네오 소울 분위기로 나아간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CHROMAKOPIA>*의 음악적 변화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은 변화가 아니었으며, 발매 연도나 유기성, 10번 트랙 징크스나 선공개 곡의 선정 같은 요소들은 대개 이렇다 할 예술적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타일러가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한 것처럼 청자를 기만한 이유는 간단하다. 타일러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모든 일 거수일투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를 부여할 때 그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 “Thought I Was Dead”와 “Noid”를 우선적으로 공개한 것은 그냥 그가 그 음악들을 특별히 좋아했거나, 뮤직비디오로 만들기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공개곡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지적하고, 이전 분위기를 신봉했던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Darling, I”, “Hey Jude”, “I Killed You”, “Judge Judy”의 따스한 흐름이 남아있는 이유도 그가 아직 그런 음악들을 더 하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그 누구도 아닌 그 스스로가 가장 만족할 만한 음악들을 앨범으로 만든다. “난 곡의 모든 부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어.” 타일러의 말이다. 이러한 말들은 갑자기 *<CHROMAKOPIA>* 안에서 너무 나도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한다.

2-2. 물론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음악 외적 요소들의 변화가 예술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다 한들, 15년을 고수해온 스타일이 이유도 없이 단번에 뒤집힌다는 이야기는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엔 문득 생리적인 문제가 끼어든다. 우리가 타일러의 익살스럽고 장난기 넘치는 익숙해져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CHROMAKOPIA>의 전체에 걸쳐서 바뀐 유의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악도, 발매 연도도, 선공개 곡의 성격도, 앨범의 구조도 아닌, 바로 가사일 것이다. 그는 이제 미래를 바라본다. 앨범의 중반부부터 <CHROMAKOPIA>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 크로마'가 아니라 타일러 오콘마이다. 그는 부계의 콤플렉스와, 성숙한 사랑과, 아들에 관한 단상들을 늘어놓는다. 특히 타일러가 게이인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아들에 대한 생각은 인생에 관한 더욱 심도있는 사유를 유발하는 촉매가 된다. Frank Ocean이 처절하게 내뱉은 저 "Two kids in the swimming pool" 라인에서 타일러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CHROMAKOPIA>와 <Blonde> 사이에서 그들이 일종의 고통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해진다. 필연적으로 닮을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아버지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에 관해 그가 논할 때, 이 앨범은 그 전체가 삶의 필연성에 관한 짧은 한숨이 되어버린다. 이 앨범은 그런 '성숙한 한숨'들로 가득 차 있다. 발매 연도나 유기성 같은 요소들엔 그만 집착해도 되겠다는 하나의 확신. 또는 여유. 타일러는 앨범 발매 직후의 콘서트에서 그것을 '나이'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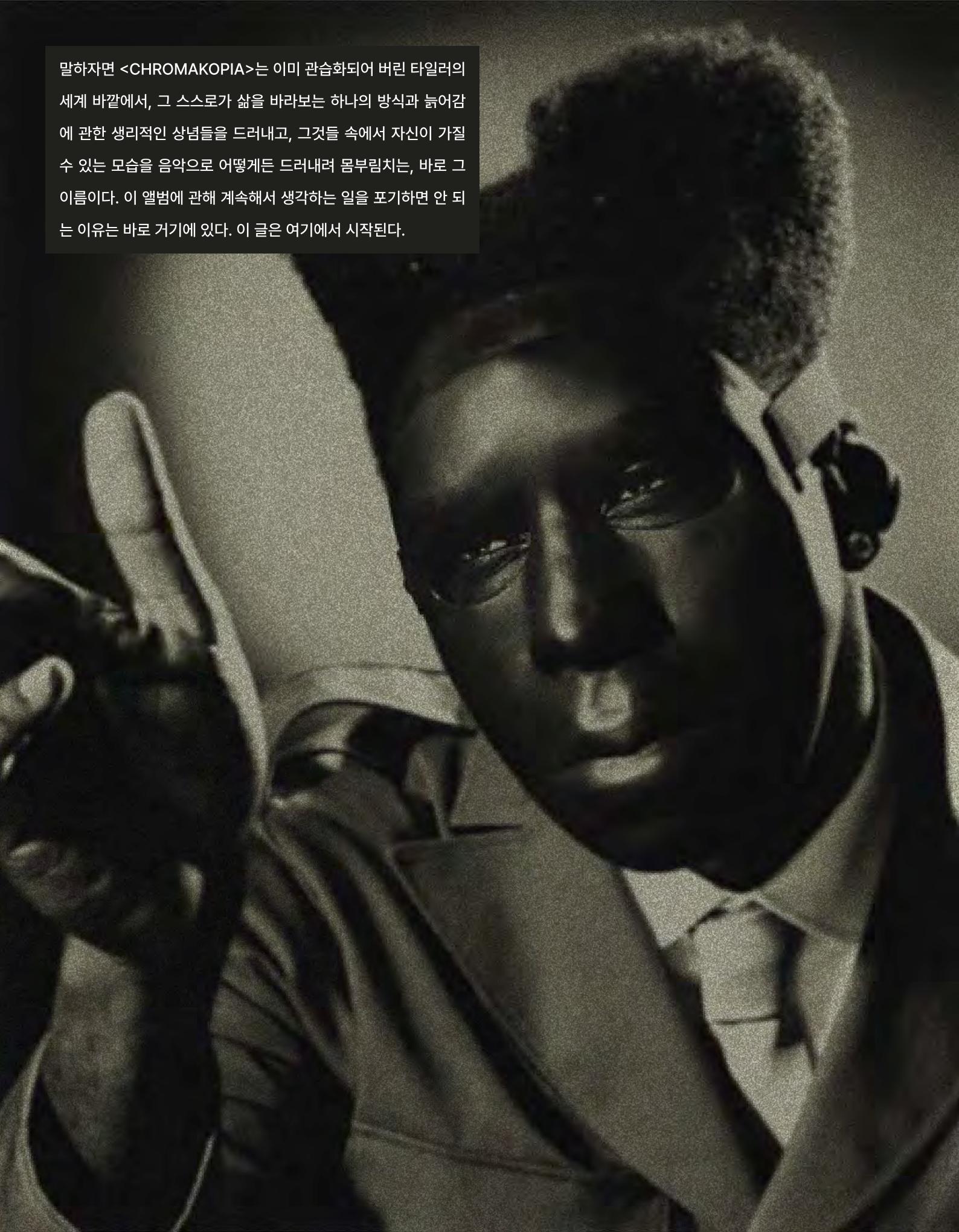


3-1. 앨범의 음악은 <IGOR>를 널뛰기할 만큼 복합적이고 변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감정적인 면모를 견드리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Like Him"의 심장을 들쑤시는 듯한 후반 신스 멜로디와 폭발적으로 공간감을 확장시키는 코러스는 "GONE GONE / THANK YOU" 후반부의 가공할 "Thank you for the love" 파트에도 비견될 수준이며, "Darling, I"의 Teezo Touchdown 을 기용한 얼터너티브 알앤비 사운드는 앨범의 가사를 아득히 강화시키며 황홀한 순간을 선사한다. 피아노 릭과 재지한 세션 구성으로 부드럽고 내향적 수용력을 뽐내는 "Take Your Mask Off"는 적어도 여태까지 발매된 타일러의 랩송 중에선 가장 훌륭하다. 후반부의 경우, 미니멀한 레트로 분위기의 "Balloon"은 다소 뜬금없지만 단일 곡으로선 충분히 흥미로우며, "Tomorrow"는 음습한 분위기와 기름기 잘잘 흐르는 브라스의 결탁해 아름다운 인상을 주기에 마땅한 수준이다. 한편 사운드적으로 충격을 주는 곡들도 많다. "Thought I Was Dead"의 브라스 전개와 그것의 심드렁한 폭발은 가히 폭력적인 충격을 선사하는데, 선공개된 타일러의 벌스가 심심하게 들릴 정도로 잔악스러운 랩 무공을 펼치는 ScHoolboy Q 때문에 곡의 둔탁함은 배가 된다. 또 다른 예시. "I Hope You Find Your Way Home"의 변화무쌍한 전개는 그 자체로도 이미 아득한 완성도를 지니지만 청렬하게 이어지는 색소폰의 재즈 솔로로 인해 치명적인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니고서 앨범의 막을 내린다. Ngozi Family를 샘플한 "Noid"의 프로그레시브 록 분위기와 정열적인 프로덕션 역시 초반부의 우월한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앨범의 전반적인 무드와 긴장감을 타이트하게 노정한다. 앨범의 유기적인 면과 디테일에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타일러 프로덕션의 저력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이유이다.

3-2. 앨범의 전체적 톤은 앨범 커버나 선공개 곡들과는 달리 어둡거나 교교한 자태를 자아내지는 않지만, 그 대신 훨씬 모던하고 센슈얼한 냄새를 풍긴다. 재즈 세션의 적극적인 활용은 앨범을 매끈매끈한 바이닐처럼 기름기 흐르는 음향들로 가득 채워, 다소 화려하지 않은 인터플레이들도 색다르게 들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 “Sticky”와 “I Killed You”的 초반 파트는 그 필요성에 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긴 하지만, 큰 흠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Hey Jane”이 자아내는 *<Wolf>* 시절 — 특히 “Awkward” — 화성 전개에 대한 재고나 “Judge Judy”가 선사하는 *<Flower Boy>* 에라로의 헌사 — “Dogtooth”的 인트로 라인 오마주, “RUNNING OUT OF TIME”, “GONE, GONE / THANK YOU”的 반박자 빠른 신스 아르페지오 — 로 그 단점이 경감되는데, 유기성이 결여된 면은 있으나 각각의 곡이 각자의 위치에서 독특한 흡인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음악을 떠나 영상적인 측면이나 앨범의 컨셉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훨씬 유니크해졌는데, 쇼트를 나누는 방식에 있어선 결코 특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만화적 구도를 실현시키거나 피사계 심도를 높여 시각적 쾌감을 증폭시킨 부분에선 타일러가 가진 카메라에 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컨셉과 영상까지 앨범의 일부라고 여기는 타일러의 예술 철학이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CHROMAKOPIA>*’는 *<Flower Boy>* 에라의 시대를 끝내고 더 다양한 장르를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앨범’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실망할 필요도 좋아할 필요도 없으며, 다음에 나올 앨범에 관한 기대만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우면 된다고 희망차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런 사태도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과도기적’이란 말은 *<CHROMAKOPIA>*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해를 포기하고 있다. 인생에 관한 진중한 담론, 그럼에도 트랙 대부분에서 흐르는 디스코 분위기의 멜로우 화성들,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과 부르짖음들은 ‘과도기’라는 이름 앞에 무력해진다. 예술가에게 있어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CHROMAKOPIA>*는 *<Cherry Bomb>*처럼 소비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Cherry Bomb>*은 *<Wolf>*와 *<Flower Boy>* 사이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 앨범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의 프레임 때문에 *<Flower Boy>*에 수록되었어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았을 “BLOW MY LOAD”, “FIND YOUR WINGS”, “SMUCKERS”, “FUCKING YOUNG” 등 보석 같은 곡들은 값싼 치장품으로 전락해버렸다. 슬픈 일이다. 각각의 음악들이 ‘앨범’이라는 문서고 앞에서 그 개별성을 잊고, 일부의 실책을 각자의 실책으로 환원 당하는 일이 이제 음악계에서는 너무 빈번해지고 말았다. 확실히 단언하건대 *<CHROMAKOPIA>*는 앨범 전체적인 유기성의 결여 덕에 ‘앨범의’ 완성도가 떨어질지 언정 특정 시대와 시대를 잇는 다리쯤으로 놓이기엔 너무나도 귀중한 앨범이다. 이 앨범의 가치는 발매 방식이나 관습의 변화나, 사운드적인 발전 혹은 실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타일러 그 스스로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앨범이 *<CALL ME IF YOU GET LOST>*와 비교해 우위니, 열위니를 따지거나 그의 커리어에서 몇 번째로 들을만한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짓이다. 이 앨범이 타일러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이질적인 것은 음악이니, 발매 방식이니 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얼터 에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타일러 그레고리 오콘마’로서 현실을 피부로 맞닥뜨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 이 앨범은 타일러의 다른 앨범들과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집착을 벗어던지고 여유로이, 그 자신의 진실된 자아로 세상을 바라보는 도약의 시선으로써.

말하자면 <CHROMAKOPIA>는 이미 관습화되어 버린 타일러의 세계 바깥에서, 그 스스로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과 늙어감에 관한 생리적인 상념들을 드러내고, 그것들 속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을 음악으로 어떻게든 드러내려 몸부림치는, 바로 그 이름이다. 이 앨범에 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You Only Die 1nce - Freddie Gibbs

2024.10.31 / SRUKSAN

1. Status / 2. Cosmo Freestyle / 3. Wolverine / 4. Brick Fees / 5. Rabbit Island / 6. Nobody Like You (Interlude) / 7. 30 Girlfriends (Yeah Yeah) / 8. Steel Doors / 9. Walk It Off / 10. Ruthless / 11. Origami / 12. On The Set

목 빠져라 <Montana>를 기대하던 이들에게, 10월 31일 할로윈을 맞이하여 프레디 깁스(Freddie Gibbs)가 선물 꾸러미를 하나 투척하고 달아났다. 비록 Madlib이 말아준 미음만큼 술술 넘어가진 않지만, 적당히 취사된 고른 쌀알에 차가운 녹차를 쓰까먹는 듯하다. 심지어 그 농도는 의외로 그리 탁하지 않다. 생각(어쩌면 기대) 이상으로 이완된 <You Only Die 1nce>에서 프레디 깁스는 올곧게 느껴질 정도로 묵묵히 일관된 톤을 수호하려 애쓴다.

모두가 인정하듯, 프레디 깁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특별히 빛이 나던 순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합작 프로젝트였다. 두말하면 입 아픈 <Pinata>와 둘의 또 다른 성취 <Bandana>는 앞서 언급했던 Madlib에게서 창출한 극의(極意)의 순간. <Alfredo>와 <Fetti> 역시 The Alchemist의 귀신같은 조력에 철저히 부응하여 재미를 봤던 나날 중 하나였다. 말마따나 그는 디렉터보다는 플레이어로 기능할 때 출중한 기량을 뽐내며, 아티스트 스스로 설정한 절대 구역 내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였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 말이다.

물론 반례 사례가 존재한다. 디렉터 프레디로서의 재능을 여실히 펼쳐내보인 바로 전작 <\$oul \$old \$eparately>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마저 그는 구역에서 이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대신, 침범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양껏 내준다. 자신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보다, 자신을 사용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식의 디렉팅 스킬.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영리하기도 한 그의 접근법은 꽤 잘 묻어 나왔고, 이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oul \$old \$eparately>는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걸매력을 뽐내면서도, 보다 친화적인 제조품목으로 취급되어 공정에 착수되었다.

반면 비슷한 방식으로 메가폰을 넘겨준 <You Only Die 1nce>는 여전히 친숙하지만, <\$oul \$old \$eparately>처럼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프레디 특유의 타격감이 아예 말끔히 표백된 것은 아닌데, 외려 이제 그는 넘겨준 메가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사를 표명한다.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플레이어로서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듯이 말이다. 몇 트랙을 제외한 대부분의 최종 검수가 Pops에게 맡겨졌는데, 개성을 지워달라는 프레디의 주문대로 충실히 안정화만을 도모한다. 하도 즈려밟아 놔 오히려 과하게 느껴지는 미묘한 현상에도 불구 – 프레디 깁스는 숨을 의도적으로 죽이며, 다만 이번에는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하며 조수석에 또다시 앉착한다.



<You Only Live 2wice>의 후속작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이번에도 게스트는 아무도 없다. 다만 이번에는 차창에 프레디의 입김이 잔뜩 서려있다. 갱스터로서의 라이프스타일, 마약, 여자 이야기를 – 조금은 느슨한 시트벨트에서 담담히 늘어놓으며, 은근슬쩍 '포커스 온 미'를 내성적으로 강요한다. 성범죄 파문, Rich Homie Quan에게 바치는 추모, Diddy 게이트에 관한 간단한 언급 등 MC 프레디 깁스로서 당연히 들어갈만한 내용들 역시 쟁진다. 조심스러워 보여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선택과 집중,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맵는 컨텐츠는 뻔하고 예상 가능하지만 – 굳건한 구색을 갖춘다.

<You Only Die 1nce>는 단순해 보여도 차별성이 분명하다.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향하도록 각도를 기울였으며, 의도적으로 모종의 것들을 희생시킨 – 이기적인 플레이어이자 적극적 관여자인 프레디 깁스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앨범이다. <Montana>를 앞두며 벌인 안전한 일탈은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그가 발돋움할 또 다른 역할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프로젝트. 어찌 됐건 래퍼는 랩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본작을 못 본 체 지나칠 수는 없을 테다.



by 자카

Eternal Atake 2 - Lil Uzi Vert

2024.11.01 / 자카

1. We Good / 2. Light Year (Practice) / 3. Meteor Man / 4. Paars In The Mars / 5. The Rush (feat. Big Time Rush) / 6. Not An Option / 7. She Tank / 8. Mr Chow / 9. Lyft Em Up / 10. Chips and Dip / 11. Black Hole / 12. Chill Bae / 13. Goddard Song / 14. PerkySex / 15. Conceited / 16. Space High

릴 우지 버트(Lil Uzi Vert)가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2023년 발매한 <Pink Tape>는 분명 그 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작품이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며 애매모호한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Pink Tape>이 리스너들로부터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았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Deftones"와 같은 Nu-Metal 비트 위에서 노래를 했고, System of a Down의 명곡 "Chop Suey"의 커버곡을 발매했으며, 또 나카무라 WWE의 테마곡을 샘플링한 트랙을 만드는 등 여러 인상적인 실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Pink Tape>은 앨범 전체로 봐서는 실패한 실험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 이후 은퇴 소동 —을 가장한 유난 —이 한차례 있고 나서 나서 발매한 “Red Moon”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한껏 담은 노래를 했었다. 여러 심리적 변화를 겪었던 그는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 어떠한 가공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음악에 담아내었고, 이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Red Moon”은 분명 그의 전환점, 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트랙이었고, 또 그는 추후 발매할 새 음반에서 다시금 자신의 진심을 꽉꽉 눌러 담은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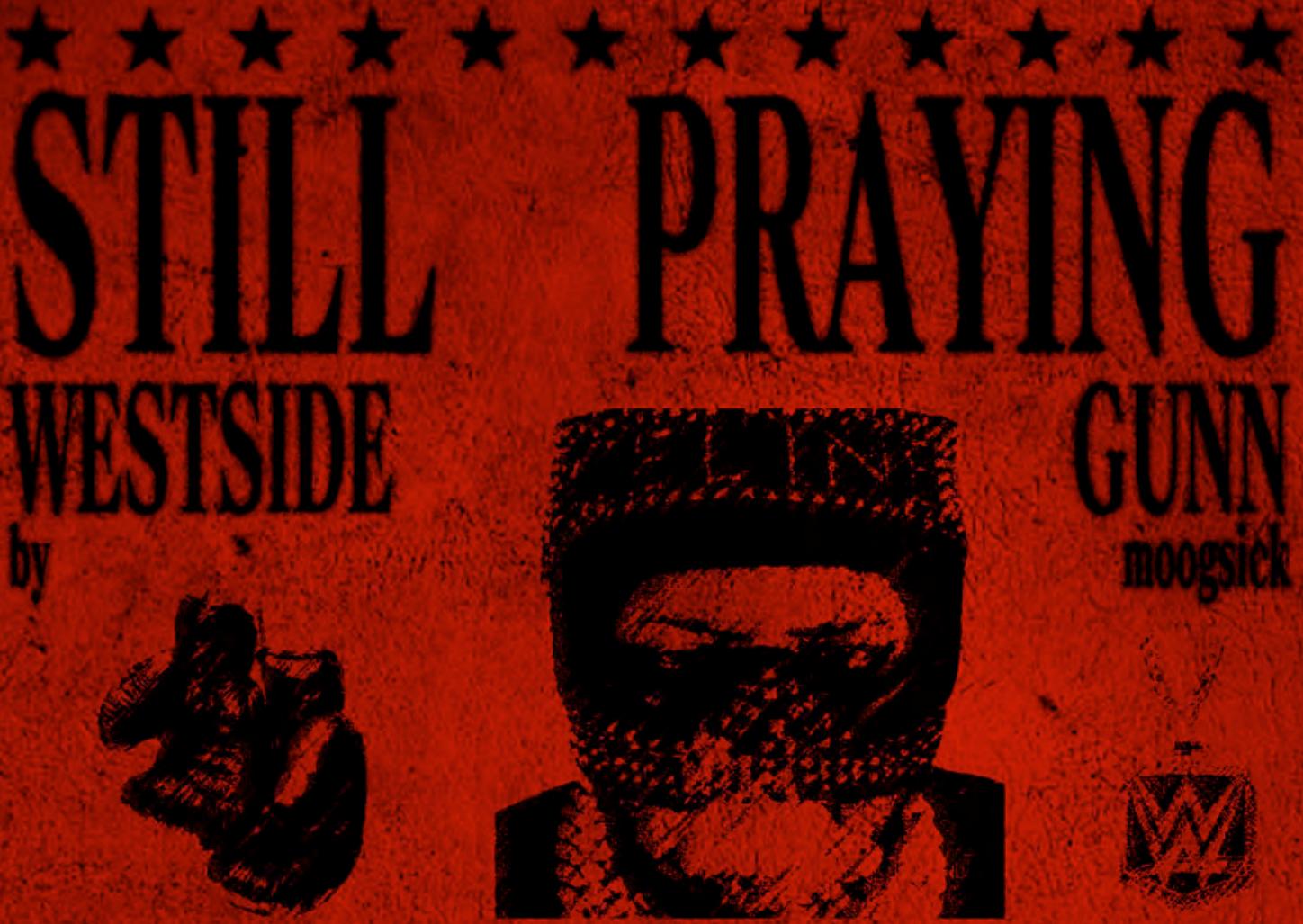
그러나 “Red Moon”의 부진 때문이었을까? *<Pink Tape>* 이후 약 1년이 지나 발매된 *<Eternal Atake 2>*에서 그는 진심이 아닌, 영혼 없는 껍데기와도 같은 트랙들을 발매하며 많은 트래퍼들의 문제점을 답습하기만 한다. 명실상부 그의 대표작인 *<Eternal Atake>*의 후속작이라는 명목으로 발매된 본작은 시리즈의 전작의 진화라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완전히 희석된 재탕에 가깝다. *<Eternal Atake 2>*에는 이전 문단에서 입 아프도록 말했던 진정성, 또 전작들에서 보여준 개성과 야망은 없어졌다. 그저 어설프기만 한 플로우와 빛민한 비트, 또 약에 취해있는 듯한 랩과 보컬 퍼포먼스만이 뒤섞여있을 뿐이다.

*<Eternal Atake 2>*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을 수 있는 인물은 앨범의 메인 프로듀서 중 하나인 Lil 88이다. 그의 프로덕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부하고 또 힘 빠질 정도로 단순하다. 지난 8월 Destory Lonely의 앨범 *<LOVE LASTS FOREVER>*에서 보여준 그대로, Lil 88의 비트는 무색무취하고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 평범한 808 사운드와 피아노 리프를 반복적으로 차용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어 앨범의 질을 세 단계는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물론 Lil 88이 아닌, 본작에 참여한 다른 프로듀서들 역시 기대 이하의 비트들을 선보인다. “Chips and Dip”에서 MIKE DEAN의 믹싱은 너무나도 조잡하기만 하다.

우지 역시 본작에 진지하게 임한 것은 아니었다. “Meteor Man”과 “Paars In The Mars”는 이 정도로 메인스트림에 있는 힙합 아티스트가 발매할 수는 없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트랙들이다. 앞서 언급된 무의미한 프로덕션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우지의 래핑 역시 비트에 전혀 맞물리지 못하며 듣기만 해도 토가 쓸리게 만든다. Charlie Puth가 참여한 “PerkySex”의 경우 단순 월리티가 부족한 점을 넘어 아티스트 본인의 정체성조차 상실한 트랙이다. 우지는 과연 실제로 비트를 듣고 랩을 뱉었는가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로 곡마다 그의 플로우는 불명확하기만 하며, 엉성한 퍼포먼스에 이어 평범한 멜로디만이 이어지며 불쾌하게만 들린다.

또한 앨범에서 보여준 그의 시도들과 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순간들은 서로 어색하게 섞여져 엇나가기만 한다. 본작에서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트랙인 “Light Year (Practice)”에서 우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한껏 피치 다운시켜 래핑을 하는데, 이는 그저 Playboi Carti를 모방하는 것에 그친다. 이후 Meteor Man, She Stank, Mr Crow와 같은 트랙들에서 우지는 완전히 활력을 잃은 채 비몽사몽인 채로 어영부영한 래핑을 내뱉는다. “The Rush”의 의도적인 “Big Time Rush” 짜깁기는 말 그대로 어이없다 못해 폭소가 나올 지경.

결론적으로 *<Eternal Atake 2>*는 우지가 대중들의 시선들을 너무 과하게 의식한 나머지 탄생하고만 졸작이다. 본작에는 어떠한 인상적인 지점도, 신선한 모습도, 또 그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순간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지는 분명 몇 년 전에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들을 선보여주던 힙합씬의 반향이였다. 그러나 *<Eternal Atake 2>*에서는 그의 어떠한 재능이나 창의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그의 과거 모습들만을 상기시켜주고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것 외에 본작이 가지는 의미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 *<Eternal Atake 2>*는 대체 왜, 대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우지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의문과 걱정만이 계속될 따름이다.



Still Praying - Westside Gunn & DJ Drama

2024.11.01 / moogsick

1. Wala Fay / 2. Justin Roberts / 3. Beef Bar / 4. Max Caster / 5. Dr. Dritt Baker (feat. Brother Tom Sos) / 6. I Know Verdy / 7. Speedy 40 / 8. Duran Duran / 9. Runway Pieces At The Last Supper / 10. Bike Air Interlude / 11. Free Shots (feat. Conway the Machine) / 12. Still Praying (feat. Stove God Cooks, Benny the Butcher, Conway the Machine & Boldy James) / 13. Underground King (feat. Rome Streetz & Westside Pootie) / 14. LeSalle Station

웨스트사이드 건(Westside Gunn)의 팬이라면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 계속되는 은퇴 소동과 번복 후 복귀 같은 일련의 'WWE'를 잘 알고 있을 테다. 개중 작년 발매한 <And Then You Pray For Me>는 그 실망스러운 결과물만큼이나 웨스트사이드 건의 반응 또 한 극적이었는데, 그는 수많은 스탠들의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후의 역작이라며 더 이상 정규작을 내지 않겠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다. <Pray For Paris>에서 시작한 통칭 'Pray'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Still Praying>은 추락했던 기대감을 다시금 올리는 뛰어난 복귀작이다.

'Hitler Wears Hermes' 연작이 갱스터 랩과 패션의 결합이라면 <Still Praying>은 올해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Sycho Sid의 사진이 커버 아트로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레슬링의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접합한 앨범이다. 레슬링 광팬 웨스트사이드 건은 직접 AEW(All Elite Wrestling)의 오프닝을 맡고, 여러 곡의 제목에 레슬러의 이름을 붙이거나 Rolling Loud 무대에 레슬러를 불러내는 등 그간 그 애정을 드러내 왔고 최근에는 'Heels Have Eyes'라는 이름으로 힙합 무대와 레슬링 매치가 합쳐진 엔터테인먼트 쇼를 진행 중이다. 본작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AEW 링 아나운서 Justin Roberts를 불러오고 레슬러 Max Caster의 랩을 집어넣는 등 작품을 마치 하나의 경기처럼 꾸려냈다.

흥미로운 점은 흔히 남성성과 폭력성의 극대화로 여겨지는 레슬링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보아도 극도로 미니멀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Static Selectah 와 Denny Laflare가 힘을 합친 "Beef Bar", "Max Caster" 와 같은 트랙은 샘플 자체의 톤이 잔잔한 탓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럼리스와는 달리 킥과 스네어가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상술한 트랙이 초반부에 몰려 있기에 자칫 밍숭맹승함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위기를 타파한 비결은 디제이 드라마(DJ Drama)의 참여에 있다. 크레딧 상 공동 작업으로 표기되어 있을 만큼 그의 역할은 참으로 막대하다. 그는 곡 중간중간 흥겨운 애드립을 내뱉고 턴테이블을 잡아 스크래치까지 해냄으로써 작품 전체에 흐르는 역설적 무드를 형성했다. 그 중에서도 "Runway Pieces At The Last Shopper"에서 웨스트사이드 건의 애드립을 스크래치로 받은 후 이어가는 구간이 백미다. 믹스테잎 애라를 어설프게 복제했을 뿐이었던 전작과 다르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알맞게 활용한 모습이다. 발매 후 내레이션이 너무 거슬린다는 의견에 '디제이 드라마 제거 버전'을 내놓기도 했으나, 둘을 연이어 들어보았을 때 그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임이 드러난다.



한편 보다 전형적인 그리젤다풍 트랙도 사이사이 빛을 낸다. Conductor Williams 특유의 샘플 차핑이 두드러지는 "Free Shots", 음험한 피아노 루프를 사용한 "Duran Duran", 이어 전통의 단체곡 "Still Praying"은 기존 작법을 선호하는 이라면 반길 곡들이다. 함께 지난 세월만큼 찰떡같은 합을 뽐낸 Conway the Machine, 웨스트사이드 건의 딸 Westside Pootie의 멘트 이후 비트가 드랍되자 탁월한 래핑을 이어간 Rome Streetz도 훌륭하지만 <Still Praying> 속 최고의 발견은 역시 "Dr. Britt Baker"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Brother Tom Sos다. 버팔로 출신 무명 래퍼인 그는 구성진 목소리로 흙을 맡은 후 바로 톤을 바꾸어 이어지는 벌스로 들어가 다소 거칠지만 묘한 매력이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웨스트사이드 건을 잘 몰랐던 이에겐 적절한 입문작이 되어 줄 것이고, 이미 그를 자주 접했던 리스너라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앨범이다. 그의 날카로운 랩을 축으로 하되 한결 가볍지만 질감에 신경 쓴 샘플 운용과 빈자리를 채우는 디제이 드라마의 존재라는 상반된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적재적소에 동료를 기용하는 솜씨와 비트 초이스 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다. 또 곡 말미에 삽입된 총성은 자신이 결국 마피오소 랩을 지향하며 화려한 삶 뒤편에는 여전히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비춘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유일하게 튀는 Daringer표 트랩 "Speedy 40"마저도 나머지 부분이 완벽하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괴작 <And Then You Pray For Me>는 단순 실험이었으며 자신의 품은 여전하다는 것을 자랑하듯 금세 건재함을 증명하니, 정말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는 마성의 남자다.



Take Off From Mercy - Contour

2024.11.01 / 감상주의

1. If He Changed My Name / 2. Now We're Friends / 3. Faith / 4. Entry 10-4 (Mood Recipe) / 5. Watchword / 6. (re)Turn / 7. Mercy / 8. Arc of Bones /
9. Guitar Bains / 10. The Earth Spins / 11. Theresa / 12. Gin Rummy / 13. Reflexion / 14. Seasonal / 15. For Ocean

1931년 2월 18일 수요일 오후 세시에 저는 '머시에서 이륙해(<Take Off From Mercy>)' 제 두 날개로 저 멀리 훨 훨 날아갈 것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 로버트 스미스

심성은 착해 보이지만 잣은 독촉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그다지 반가울 수 없었던 일개 보험회사 직원 스미스는 느닷없이 푸른 비단 날개를 어깨에 매단 채, 지붕 위에서 위태로운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노란색 집 문에다 내달은 쪽지는 유서와 다름없었다. 주변인들은 그를 뜯어말리는 구조원이기보다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 그의 심경은커녕 신변-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서 간당간당한 채 있는-에조차 별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아뿔싸, 결국 스미스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추락일지, 아니면 그가 '약속'한대로 비행일지 나로선 알 수 없다. 토니 모리슨의 소설, <솔로몬의 노래>의 주인공 밀크맨은 그 의미를 해아리게 된 것일 터.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그 의미를 진정 알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컨투어(Contour)는 어떨까. "Theresa"의 비디오에서 반쪽짜리 날개를 달고 똑같이 원을 그렸던 그는 과연 어느 쪽일까. 모진 고통 속에서 비행을 감행한 스미스... 아니면 난잡한 혼란 속에서 비행의 의미를 깨닫게 된 밀크맨?

어쩌면 그의 신보에서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쪽일지 보다 '둘의 이야기를 어째서 꺼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가 저서를 인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흑인 노예였던 할아버지, 메이컨 데드 1세의 이야기를 추적하던 밀크맨처럼, 조상으로부터 자신의 혈통을 고찰하고 싶었던 것일까. 원래도 그는 개인적 번뇌와 고행을 시대 초월적 범주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이야기와 결부 짓기 좋아하던 그였다. 적어도 전작 <Onwards!>에서는 그랬다.

전작에서도 깊은 고통에 대해서 노래한 바 있다. 음을하다 못해 피폐함을 절로 느낄 감당 불가 수준의 고통을 말이다. 그것은 태생적 이거나 혹은 운명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바깥으로 떨쳐낼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굴레라며 넘어가기에는 지나치게 무겁고 불합리한 무언가가 죽음을 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를테면 원죄나 카르마, 혹은 저주나 절대자의 지독한 장난 까지 덧붙일 수도 있겠다. 물질은 물론 허무를 표출할 일말의 감정 마저 모두 잃고 파산해버린 화자가 맹아리 없이 연거푸 자조를 뿐 어대는 "Hearing Voices"를 다시금 떠올린다. 그의 절망은 분명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었다. 그가 스미스를 봤다면 지체 없이 '포기에 불과한 처절한 곤두박질'이라고만 받았을겠지.

그럼에도 고통을 재료로 삼아 정신을 굳건히 만드는 능력(resilience; 혼=/ '회복탄성력')과 결실로서의 구속(redemption; '구원'보다 적확한 번역)은 전작의 올곧은 균형을 위한 주춧돌이었다. 또한 음악사적으로 그것은 '소울 뮤직'의 가장 근본된 정신이자 오늘날까지 중심이 되는 사조였다. 굳이 '사이 키델리아/베드룸 팝'의 요소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본작도 어김없이 소울에 충실히 작품이다. 작품의 모든 레퍼런스와 내러티브는 결국 개인의 반추와 공동체로 향하는 의식의 고양을 위한 것이다.

이는 그가 작품 전반의 메인 악기로 활용하고 있는 '기타'에 내재된 의미로부터 찾을 수 있다. 컨투어는 기타가 반추와 공동체적 고양, 양쪽의 역할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만의 이야기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무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작이 기타를 전면적으로 밀고 나갈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어쿠스틱 인트로 "If He Changed My Name"의 타이틀은 밀크맨, 철저히 한 인물에 관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정당한 세례에 의한 영칭이 아닌, 조롱에 의한 멸칭이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의 모멸감과 억울함은, 지독하게도, 그러나 번듯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피와 역사를 증오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메이컨 2세'와 어쩌면 다를 바 없었을 로버트 스미스를 거쳐 좌절을 경험해 온 이 세상 수많은 흑인들에게도 존재해 있는 것으로 확장된다. 소설에서는 활자였다면, 음악에서는 다른 아닌 기타가 이를 매개하는 것이다.

한 편, 기타 외의 것들은 반대로 각자의 무의식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이 본작에서 발휘되는 사이키델리아의 기능이다. 의도적으로 싱어의 여린 테너를 더욱 희미하고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나, 비정형적인 방식의 편곡으로 조성된 몽롱한 사운드스케이프 등이 이를 위한 연출이다. 더불어 “Now We’re Friends”에서는 급격한 베이스 브레이크다운으로 하여금 심연에 깊숙이 잠식시키기까지 한다. 그 정도 밑바닥까지는 가야 제대로 된 반주가 가능하다고 여긴 것일까. 그럴 만하다. 우리가 실마리를 얻고자 던졌던 처음의 질문은 한 인간의 비극적인 결말로부터 초래한 것 이지 않았는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야 할 인간은 작품의 창작자가 아니라, 그의 가이드에 따르는 청자들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동료를 만났다 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하는 말이다. 그 친구는 유랑하는 블루스맨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를 결사대로 이끄는 기타(여기서는 캐릭터를 지칭)로 서로 입장이 달라지기 전까지 밀크맨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다. 그 동기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동기다. 고로 다시 물겠다. 스미스 씨는 어디로 향하고자 했던 것일까. 소설보다 더 모호하게, 끝내 명확한 결말을 내어주지 않는 본작의 전개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주길 간청하고 있다. 어찌됐건 때가 됐을 때 어딘가에는 반드시 착륙을 할 것이다. 적어도 무의미한 이륙은 아니었기를 바라며.





Petrichor - 070 Shake

2024.11.15 / denim

1. Sin / 2. Elephant / 3. Pieces of You / 4. Vagabond / 5. Lungs / 6. Into Your Garden (feat. JT) / 7. Battlefield / 8. Winter Baby / New Jersey Blues / 9.

Song To The Siren with Courtney Love / 10. What's Wrong With Me / 11. Blood On Your Hands / 12. Never Let Us Fade (feat. Cam) / 13. Love

티 없이 맑던 하늘에는 어느샌가 겁푸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의 굉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굵은 빗줄기는 파릇한 어린 잎으로 뒤덮인 숲을 망들게 한다. 며칠간 세상을 적신 뒤에야 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량하게 시치 미를 뗈다. 그러나 어둡게 물든 흙, 흠뻑 젖어든 나무 밑동, 잎사귀에 고인 물방울에서 나는 냄새는 서럽게 올던 하늘을 기억한다. 비애의 잔여 감정을 머금은 공기의 냄새를 담아낸 앨범: 070 셰이크(070 Shake)의 정규 3집 <Petrichor>다.

스튜디움을 꽉 채우는 거대한 사운드로 본인의 가장 세심한 감정을 노래하는 070 Shake의 이번 앨범은 그녀가 동시대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두려움 없는 혁신자인지를 보여준다. 이전 작품인 <Modus Vivendi>와 <You Can't Kill Me>에서는 주로 대기감 있는 사운드와 오토투에 의존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더욱 섬세한 보컬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다.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는 서사로 가득 차 있는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첫 트랙 “Sin”은 Stevie Wonder의 <Songs in the Key of Life>를 연상시키는 피아노와 레이어드 신스의 복합적인 고조를 통해 청자를 곧 이어질 감정적 여정으로 이끈다. 이어지는 “Elephant”는 Depeche Mode의 고딕적 요소와 강렬한 비트를 결합해 고독과 상실감으로 물든 기억의 무게를 논한다.

이전보다도 대담해진 프로덕션은 본인의 감정을 더 많은 대중과 나누기 위한 공감대의 확장을 위한 시도이다. 그레고리안 성가와 강렬한 드럼의 융합체인 “What’s Wrong With Me”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본인의 탓으로 돌리며, 이로 인한 울분의 폭발을 청각적으로 표현해낸다. “Pieces of You”와 “Winter Baby / New Jersey Blues”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극적인 보컬과 서프 록 및 블루스의 요소를 혼합해 Shake의 음악적 범용성을 보여준다. 특히 청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겨울의 차가운 정서를 아름답게 묘사한 후자의 경우,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 추락한다는 비극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Shake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제3의 시각을 제공하며 더욱 극단적인 연출을 완성시킨다. Courtney Love와 함께한 “Song to the Siren”은 Tim Buckley의 원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신비로운 신스와 디스토션을 통해 감정의 요동을 묘사한다. 또한, Lily-Rose Depp의 낭송이 추가된 “Blood on Your Hands”는 음악이 아닌, 무너져가는 본인을 향한 헌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Petrichor>는 폭우 속 오열하는 모습이 아닌,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간 후 잔여 감정을 추스리는 본인을 그린 앨범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실과 자기혐오는 잣아들며, 점차 개어가는 하늘을 표현한 가스펠 분위기의 “Never Let Us Fade”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와 유사한 영적 해방감을 제공한다. 그렇게 다다른 마지막 트랙 “Love”는 끝날 것 같지 않던 슬픔 역시 언젠가는 사그라들며, 이후의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대중과 평론가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편이다. 일부는 작품에 담긴 Shake의 예술적 비전과 야심을 두고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나 <The Wall> 같은 고전 명반에 비유한다. 그러나 반면에는 앨범의 과도하게 실험적인 순간들이 감정을 분산시키고, “Winter Baby / New Jersey Blues” 같은 트랙을 두고 틈새 청중을 위한 사운드트랙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나아가 사운드 측면에서는 Shake의 앞선 작품들에 비해 진보하였으나, 사적 비유와 암호화된 감정으로 쓰여진 가사는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마치 광대한 무대 위 홀로 서 낭송하는 내적 독백처럼, 청중은 그 스케일에 압도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본인의 감정적 깊이와 대담함을 담아낸 <Petrichor>는 070 Shake의 무한한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임은 확실하다. 그녀가 말하길, 때로는 쉽 없이 쏟아지는 비에 세상은 잠길 듯 하겠으나, 결국 먹구름은 언젠가는 걷힐 것이고 남는 건 땅이 굳기 전의 잔향 – ‘펜트리코르’만 남을 것이라고.

THE CROSSROADS



The Crossroads - Cordae

2024.11.15 / 자카

1. Intro / 2. 06 Dreamin / 3. Back on the Road (feat. Lil Wayne) / 4. Summer Drop (feat. Anderson .Paak) / 5. Nothings Promised / 6. Mad As F*ck / 7. All Alone / 8. Never See It (feat. Juicy J) / 9. Pray (feat. Ty Dolla \$ign) / 10. Don't Walk Away (feat. Jordan Ward & Ravyn Lenae) / 11. Saturday Mornings (feat. Lil Wayne) / 12. No Bad News (feat. Kanye West) / 13. Shai Afeni / 14. What Really Matters / 15. Syrup Sandwiches (feat. Joey Bada\$\$) / 16. Now You Know / 17. Two Tens (feat. Anderson .Paak)

콜데(Cordae)의 새로운 앨범, <The Crossroads>를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의 다사다난했던 과거들이 떠오른다. 10년 전 열일곱의 나이로 불안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던 때, YBN 크루의 일원으로써 랩을 벗으며 나머지 두 멤버를 제외하고 홀로 그룹을 이끌어나가 다시피 했던 때, 이후 컨셔스 힙합이라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어 안정기에 돌입하기까지. 콜데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야망에 비해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을 밟아왔으며, 많은 이들에게 과소평가를 받아오며 많은 굴곡을 겪었다. 그렇기에 <The Crossroads>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또 전작들과 필수적으로 비교되는 이유도 모두 그런 그가 겪어온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랩 네임에서 'YBN' 세 글자를 빼고, Cordae라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당당히 랩을 맵기 시작한 <The Lost Boy>에서부터 더욱 넓어진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조망하기 시작한 <From a Bird's Eye View>까지. 항상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려 했던 그였지만 그 전작들에는 공통적으로 깊이가 다소 부족하고, 음악 역시 신선한 길을 택하기보단 익숙한 틀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진정성을 항상 꾹꾹 눌러 담았던 그의 메시지가 무안해질 만큼 평범한 프로덕션과 음악적 시도 탓에, 그의 목소리를 듣보일 수 있게 만들 기회들은 항상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The Crossroads>에서 콜데는 그러한 전작들의 문제점들을 타파하고야 마는데,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가볍게 소화해 내며 프로덕션과 앨범의 구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Kanye West의 클래식 트랙 "Heard 'Em Say"를 아름답게 레퍼런스한 "Nothings Promised"나, Anderson .Paak과의 통통 튀는 "Summer Drop", 하드코어한 정통 블랙 트랙 "Mad as Fuck" 등등, 콜데는 <The Crossroads>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스타일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독창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본작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은 역시나 콜데의 유려한 래핑과 리릭 시즈다. 콜데의 플로우는 이전보다 한층 더 유연해졌으며, 트랙마다 분위기에 맞게 변주를 주는 역량이 돋보인다. "Back on the Road"와 "Mad as Fuck"에선 공격적으로, "Summer Drop"과 "Syrup Syndromes"는 가볍고 밝은 톤으로 트랙을 이어나가며, "Now You Know"에선 다소 진지하게 자신만의 내면을 꺼내며 압도적인 딜리버리를 보여준다. 리릭시즈다에서는 복잡한 비유나 수사 없이 직관적으로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All Alone"에서는 고독과 자기 성찰을 담아내며 자신의 삶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고 — "Now You Know"에서는 담백하게 자신의 성장을 녹여냄으로써 공감과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게끔 만든다.

앨범에 참여한 많은 피처링진들 역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남겼다. 그중 단연 인상적인 아티스트는 2개의 트랙에 참여해 명불허전의 벌스를 뽑아낸 Lil Wayne인데, "Saturday Mornings"에서 보여준 멋의 정점에 서있는 퍼포먼스는 앨범 전체를 통틀어보아도 가장 희열을 주는 순간 중 하나였다. 동일하게 2개의 트랙에 참여한 Anderson .Paak 역시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의 개성을 높진하게 녹여낸 캐치한 벌스들을 선보이며 앨범의 완성도에 여실히 기여한다. 이외에도 "No Bad News"에 깜짝 등장하는 Kanye West나(...) 담백하게 "Don't Walk Away"의 치장을 맡아준 Jordan Ward와 Ravyn Lenae 등등 앨범에 참여한 피처링진들 모두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The Crossroads>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다만 사소하게 아쉬운 지점들 역시 존재했는데, 깊이감과 무게감이 큰 앨범에 비해 다소 메시지나 편치라인이 부족한 트랙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앨범의 전반적인 구성이 유기적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지만, 일부 트랙들은 다른 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All Alone"에서 콜데는 자신의 외로움을 가사에 직설적으로 전달하는데, 곡의 무거운 주제와 반대되게 다소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어 앨범의 흐름이 약간 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콜데는 본작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The Crossroads>는 그동안의 작품들에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해 내며, 콜데 본인만의 음악적 색깔을 모두 녹여낸 수작이다. 앨범 곳곳에 녹아든 삶에 대한 고찰과 메시지는 공감과 연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다가오며,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덕션 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올곧게 담아냈다는 점도 인상 깊다. <The Crossroads>는 인생의 교차로에 선 콜데가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의 출발점이며, 그가 그간 얼마나 과소평가되었고 — 또 얼마나 재능 있는 아티스트인지에 관한 시원한 증명이다.

CLASSICS



THE MAIN INGREDIENT

The Main Ingredient - Pete Rock & C.L. Smooth

1994.11.08 / ryuzimoto

1. In the House / 2. Carmel City / 3. I Get Physical / 4. Sun Won't Come Out / 5. I Got a Love / 6. Escape / 7. The Main Ingredient / 8. Worldwide / 9. all the Places / 10. Tell Me / 11. Take You There / 12. Searching / 13. Check It Out / 14. In the Flesh / 15. It's on You / 16. Get on the Mic

원두 선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정이다. 각 원두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선택이 맛과 향을 정의한다. 이후 볶는 과정과 시간에 따라 풍미는 또 변화한다. 로스팅이 덜 된 원두는 밝고 신맛이 강조되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점차 드러난다. 이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세심하고 정교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은 블렌딩을 거치기도 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농도를 띤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그 어떤 힙합 앨범보다 94년도 발매된 <The Main Ingredient>의 프로덕션 흐름과 가장 닮아있다.

브라스 사운드와 소울풀한 샘플링이 선명하게 담긴 1집 <Mecca and the Soul Brother>과 비교하면, "T.R.O.Y. (They Reminisce Over You)"와 같은 트랙의 부재도, 사운드의 직관적인 쾌감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The Main Ingredient>에는 더 큰 매력이 배어 나온다. 균일하게 흐르는 각 트랙들은 템포의 과도한 변화나 전환 없이 매끄럽게 넘어간다. 이처럼 조정된 밸런스는 밀도 높은 섬세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작에서 많이 사용된 브라스, 소울 샘플은 조금 힘을 빼고 재즈와 펑크를 더 많이 녹여내, 또 다른 부드러움을 표출해낸다. 이와 같은 피트 록의 작곡 기법은 전문적인 바리스타의 솜씨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큐티(Q-Tip)의 보이스로 시작하는 인트로인 "In the House"부터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나선다. "I Get Physical"의 질감은 지금의 재즈 힙합과 매우 유사하다. 어쩌면 피트 록에게는 이 스타일이 이미 익숙한 영역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힙합 장르 내에서 많이 샘플링된 트랙 중 하나로 알려진 Bob James의 "Nautilus"를 차용한 "Sun Won't Come Out"에서도 재지함은 빛을 발한다. 정제된 듯한 드럼과 전반적으로 미니멀함이 돋보이는 트랙 "Escape"와 90년대 팝송의 기조가 담긴 "Take You There"도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다.



씨엘 스무스(C.L. Smooth)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랩 퍼포먼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물론 솔로작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적어도 피트 록 & 씨엘 스무스의 합작에서까지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의 유연한 전달 방식은 그 누구보다 피트 록의 비트에 적절히 맞물린다. 또한 본작에서 그가 보여준 가사는 섹스를 비롯, 조금은 가벼운 주제들이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프로덕션에 적절하게 잘 묻어 나와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느긋하면서도 즐거운 몰입감을 선사해 준다.

데뷔 EP <All Souled Out>를 포함, 당시 피트 록 & 씨엘 스무스(Pete Rock & C.L. Smooth)가 기존에 발매한 2장의 음반은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두 작품보다 <The Main Ingredient>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판단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상징적인 지점은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피트 록 & 씨엘 스무스는 각자의 지향점을 따라,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간다. 또한 홀로서기한 두 대가가 이후 발매한 음악들은 <The Main Ingredient>에 응축된 사운드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많이 닮아있다. 마치 이 앨범이 새로운 시작의 행보를 예고한 듯 말이다. 30년이 지난 현재, 어느덧 헤어짐의 쓱쓸함은 흐려졌고, 동시에 느껴지던 빈티지한 고소함만이 아직도 뚜렷하게 입안을 맴돈다.





CrazySexyCool - TLC

1994.11.15 / 자카

1. Intro-Lude / 2. Creep / 3. Kick Your Game / 4. Diggin' On You / 5. Case of the Fake People / 6. CrazySexyCool (Interlude) / 7. Red Light Special / 8. Waterfalls / 9. Intermission-Lude / 10. Let's Do It Again / 11. If I Was Your Girlfriend / 12. Sexy (Interlude) / 13. Take Our Time / 14. Can I Get a Witness (Interlude) / 15. Switch / 16. Sumthin' Wickes This Way Comes

티엘씨(TLC)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예측불허한 비주얼들로 대중들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멤버 셋의 개성과 장단점을 모두 담은 음악과 퍼포먼스 역시 모두 역사로 기억되었다. 티보즈(T-Boz)는 쿨한 존재였고, 칠리(Chilli)는 섹시하고 관능적이었으며, 또 레프트 아이(Left-Eye)는 미친 존재로 여겨졌다. 셋은 그룹 내에서 각자 다른 역할과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매력과 목소리가 융합되는 순간 티엘씨의 진정한 잠재력과 장점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여기 그녀들의 정체성과 개성을 상징하고 있는 앨범이 있다. 티엘씨의 2번째 정규 앨범 <CrazySexyCool>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무엇보다 그녀들을 잘 수식해 주는 단어가 아니던가?

1992년 티엘씨의 데뷔 앨범 <Oooooohhh... on the TLC Tip>는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면, <CrazySexyCool>은 보다 여성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었다.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해 노래하며 젊은 여성들과 리스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티엘씨는 자신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되, 동시에 더 세련되고 스캔들러스한 작품을 만들어내며 여러 형태의 쾌락과 섹시함을 보여주었다.

Xscape, En Vogue, SWV를 비롯한 그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룹들이 정갈한 하모니를 중시했었다면, 티엘씨는 우아하지도, 또 정갈되지도 않은 그룹이었다. <CrazySexyCool>이 발매되었던 때는 Usher, Aaliyah, Nas, OutKast를 비롯한 1세대 R&B 스타들과 래퍼들이 등장하던 시점이었다. 티엘씨는 이들을 따랐다. 1집의 성공은 그들을 애틀랜타의 힙합/알앤비 씬의 중심으로 옮겨놓았고, 이로 인해 <CrazySexyCool>는 알앤비와 힙합이 어우러져 이전에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묘한 섹시함을 풍기는 고혹적인 작품이 되었다.

<CrazySexyCool>만이 갖고 있는 무드를 상징하는 멤버는 단연 티보즈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본작과 특히 잘 묻어 나오며 앨범에 섹시한 매력을 양껏 더하는데, 특히 "Red Light Special"과 같은 트랙에서 느릿하게 유혹을 하는 듯한 보컬은 앨범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 중 하나이다. 티보즈가 나른하고 여유로운 보컬을 갖고 있었다면, 칠리는 완전히 역동적인 보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섹시함과 쿨함, 그리고 멍청한 매력이 모두 뒤섞여있어 본작의 짜릿한 개성과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CrazySexyCool>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멤버는 레프트 아이였다.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원에서 강제 치료를 받고 있던 그녀는 그로 인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앨범에 참여한 다른 피처링진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꿀릴 바가 없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Waterfalls"에서 그녀가 잠깐잠깐 등장하는 순간들은 짧지만 앨범을 상징하는 모먼트이고, "Can I Get a Witness (Interlude)"에서 Busta Rhymes와 주고받으며 래핑을 하는 부분들을 비롯한 그녀의 래핑은 Phife Dawg이나 André 3000을 비롯한 피처링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Creep"과 "Waterfalls"는 티엘씨의 개성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담아낸 트랙이다. "Creep"은 몽환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여성의 사랑에 대한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풀어나간다. 특히 본 트랙에서는 티보즈의 낯은 보컬이 돋보이는데, 비밀스러운 가사와 완벽히 어우러져 아이코닉한 모습을 보여준다. "Waterfalls" 역시 마찬가지이다. 티엘씨는 본 트랙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난과 약물, 에이즈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데, 레프트 아이의 랩 파트와 다른 멤버들의 부드러운 보컬이 그 메시지와 절묘하게 대비를 이룬다. 이는 "Waterfalls"가 그녀들의 명실상부 대표곡이자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90년대 음악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CrazySexyCool>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Kick Your Game"과 "Diggin' on You"는 각기 다른 분위기와 메시지를 담아 앨범에 다양한 색채를 더한다. "Kick Your Game"은 평키하고 재치 있는 사운드를 담아 티엘씨가 가진 장난스러운 매력을 잘 보여주는 트랙이며, "Diggin' on You"는 다소 감성적이고 사랑에 빠진 순간을 섬세하게 풀어낸 아름다운 곡이다. 이처럼 <CrazySexyCool>은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낸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어 티엘씨만의 아름다운 서사를 완성시켜낸다. 본작은 사랑과 쾌락, 갈등과 성찰을 아우르며 여성들의 다양한 감정을 비추고 있다.

티엘씨는 본작에서 감정과 자유로움을 가감 없이 표현하며 기존의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성공했다. <CrazySexyCool>은 티엘씨의 전성기, 그리고 90년대 음악씬을 상징하는 음반이 되었으며 그들을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상징적인 음반이다. 각 멤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본작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Crazy', 'Sexy', 'Cool'. 말 그대로 그녀들을 상징하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CrazySexyCool>은 앞으로 또 한 번의 30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CrazyS



Mm..FOOD 20th ANNIVERSARY

MM..FOOD - MF DOOM

2004.11.16 / 온암

1. Beef Rap / 2. Hoe Cooks / 3. Potholderz (feat. Count Bass D) / 4. One Beer / 5. Deep Fried Frenz / 6. Poo-Putt Platter / 7. Fillet-O-Rapper / 8. Gumbo / 9. Fig Leaf Bi-Carbonate / 10. Kon Krane / 11. Guinnesses (feat. Angelika & 4ize) / 12. Kon Queso / 13. Rapp Snitch Knishes (feat. Mr. Fantastik) / 14. Vomitspit / 15. Kookkies

아마추어리즘(Amateurism). '경제적 이익 취득이 아닌 개인의 흥미를 위해 스포츠에 임하는 정신'이란 사전적 정의와 달리 엠에프 둠(MF DOOM)은 오직 그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 평생을 음악 제작에 투자했다. 그는 한때 노숙으로 연명했을 만큼 가난한 혁인 예술가였고, 그에게 음악이란 그가 가진 최고의 재능을 모두 바쳐야만 겨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생의 부담과 같았다. 평생을 소시민처럼 살아온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선 힙합 아마추어리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지독한 역설이란... 그 혼미한 라임만큼이나 엽기적이기 짹이 없다. 우리는 그의 정신이 아닌 그의 작업 방식만을 기억하고 기린다. 죽을 때까지 별을 피해 그늘 아래에만 존재하던 언더그라운드의 마왕이 세상에 남긴 족적이란 그의 비트와 목소리밖에 없기에. 그리고 <Mm..Food>는 그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가장 '엠에프 둠'다운 족적이다.

Oh, food at last!

-“Beef Rapp” 中

지금에 와서야 회상해본다면, 2004년은 둠의 해와 진배없었다.

그 해에 흑인 음악 라디오를 훔쓴 장본인들의 목록 중 둠의 이름은 당연히도 없었지만, 그는 거울들의 그림자 속에서 힙합 역사상 최고의 언더그라운드 명반으로 기억될 음반 두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역사에 끝까지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라디오의 전파가 아닌 바이닐과 같은 실기록물이다. 때문에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과 언더그라운드 애호가들은 — 심지어 Kanye West라는 거장이 <The College Dropout>으로 데뷔했음에도 — 2004년을 둠의 해로 기억하고 있다. 둠이 4개의 음반을 연달아 작업하며 그 어떤 프로젝트도 구태여 대작으로 기획하지 않았음을 곱씹어본다면, 역설적으로 그런 둠의 천재성에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장담컨데, <Mm..Food>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충 만들어진 작품이다. 본작의 작업기는 그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앨범의 소수 참여진 또한 그들의 정확한 행방을 추적하기 난해하며, 무엇보다 결과물 자체가 이 도발적인 추론을 지지하는 최고의 근거격이다. <Mm..Food>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비트는 <Metal Fingers Present: Special Herbs> 시리즈에 유래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이미 대부분이 데모 형태로 고안되었거나 완성까지 된 작업물이라는 의미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전설적인 “Rapp Snitch Knishes”的 원형을 <Special Herbs Vol. 5>의 “Coffin Nail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Madlib의 “One Beer”가 <Champion Sound>의 엔딩으로 사용되었음을 목도할 수도 있다. “Poo-Putt Plutter”에서 “Fig Leaf Bi-Carbonate”로 이어지는 사운드 콜라주 스킷 구간은 둠이 자신의 프로덕션에 가지는 자부심에 기반한 일종의 과시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자신감에 부합하여, 둠의 독창적인 샘플링은 여전히 신선하기만 하다. 그의 샘플 플립은 RZA가 고안한 단순한 샘플 루핑에 기반하는데, 둠의 프로덕션적 정체성은 바로 샘플 초이스와 톤 조성에 중심을 둔다. 그 누가 <Marvel's Spider-Man> 에피소드 17의 짧은 클립에서 재생된 OST를 전설적인 힙합 비트로 가공할 발상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인가? 혹은 <Fat Albert>의 할로윈 극장판 OST에 드럼 브레이크를 덧대어 훗날 Joey Bada\$\$가 사용케 할 만큼 엽기적인 이스트코스트 힙합 인스트러멘탈로 승화하는 창작 행위는? 둠 이전엔 아무도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한 적이 있는데, 둠은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가 샘플의 원본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뻔뻔함으로 일관함에도 그의 샘플링이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리고, 실제로 창의적이다. 아마 <Mm..Food>보다 창의적으로 샘플링된 음반을 지구상에서 몇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다. 전형적인 ‘Craftship’과는 정반대로, 장인정신보다는 즉흥성에 주안한 결과물이 적법한 시간대와 맞물린 결과물이다.

재밌게도 가장 ‘DOOM-ious’한 비트는 정작 둠에 의해 제작되지 않았다. Supersonic의 “J.J. FAD”와 Anita Baker의 클래식 “Sweet Love”를 절묘하게 합성한 “Hoe Cakes”的 비트는 누가 듣는다 한들 둠이 “Doomsday”에서 Sade와 BDP를 합성한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곡은 그가 아닌 그의 동생 DJ Subroc이 프로듀싱했다. 마치 후대에 Kanye West의 “Devil In A New Dress”가 Bink!에 의해 프로듀싱되었고, JPEGMAFIA의 “Real Nega”가 Chef Warren에 의해 프로듀싱된 것처럼 말이다. 물론 반례도 존재한다. Billy Butcher의 원곡보다 더 탄력적으로 가공한 “Potholderz”的 베이스나 “Kon Karne”的 Sade 샘플에서 느낄 수 있는 익숙함처럼 말이다. 백미는 “Rapp Snitch Knishes”다. 모든 면에서 — 심지어는 미지의 실력자 Mr. Fantastik마저도! — 힙합 명곡으로 기억되기에 모남이 없는 이 트랙은 David Matthews의 <Dune> OST인 “Space Oddity”的 속도를 증배함으로써 가히 전율적인 음향을 자아낸다.

Darker than the East River, larger than the Empire State

Where the beast who guard the barbed wire gate

-“Kon Karne” 中

<Mm..Food>의 우수성은 프로덕션 쪽의 비중이 더 크지만, 그렇기에 결정적으로 <Mm..Food>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다른 아님 둠의 신묘한 라임이다. 엠에프 둠은 힙합의 악당, 좁혀서는 랩의 악당으로서 질서를 파괴하고 힙합의 본질을 찾기 위해 기존의 체제에 반기를 드는 캐릭터이다. 그렇기에 둠은 2-4 드럼 리듬에 기반하는 기존의 플로우 설계에서 탈피해 라임을 더 복합적이고 불규칙하게 배치한다. 가끔 등장하는 80년대 힙합의 샘플만큼이나 맥락 없이 등장하는 둠의 라임 점프 스퀘어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골든 에라를 일부 연상시키면서도 그 향수마저 빌런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가차없이 멸하는 둠만의 플로우는 극히 작가주의적이며 창의적이다. 그의 라임 배치는 펀치라인을 위한 초석이기도 한데, 그 빌드업이 과하게 고도의 지식을 요하고 자문화 중심적이기에 직설적인 유머라기보다는 문학성을 함유한 코미디에 근접할 지경이다. 헛웃음과 경탄을 자아낸다는 점에선 결국 유머이긴 하지만. 적어도 음식에서 따온 곡 제목으로 부여하는 컨셉 앨범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래퍼들을 간식 정도로 비하하는 거만함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이라는 점에서, 비원어민들이 더한 연구 가치로 <Mm..Food>의 리릭시즘은 클래식으로서의 기품을 갖추게 된다.



막시무스 마스크, 닉터 둠, 알코홀릭, 올드스쿨 힙합, Sade, 80년대 마블 코믹스 애니메이션, 고지라, Wu-Tang, 엠에프 둠을 이루는 원소는 너무 다양한 나머지 그 어떤 카테고리의 집합도 그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Operation: Doomsday>는 너무 설의었고, <Born Like This>는 하향곡선의 최고점에 위치한다. <Take Me To Your Leader>는 King Geedorah만을, <Vaudeville Villains>은 Viktor Vaughn만을 대표한다. 심지어 그 저명한 <Madvillainy>조차 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Mm..Food>는 둠을 완벽하게 정의해낼 수 있다. 매우 독창적이고 전위적이나 패러다임을 제시하진 않는,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복제품을 찾자면 찾아볼 수 없는, 단연코 음악 역사를 통틀어 유일한 음반. 본작이 영원히 그의 팬들을 위한 컬트적 소울 푸드로 기억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오늘도 깨진 접시로 진미를 음미한다.

'FEATURE'



공ZA의

Vol. 4

재마카세





Doin' the Thing: The Horace Silver Quintet At the Village Gage - Horace Silver Quintet / Blue Note No. 4076

1. Filthy McNasty / 2. Doin' the Thing / 3. Kiss Me Right / 4. The Gringo / The Theme: Cool Eyes / 5. It Ain't S'posed to Be Like That / Cool Eyes

Members

Horace Silver – 피아노 / Blue Mitchell – 트럼펫 / Junior Cook – 테너 색소폰 / Gene Taylor – 베이스 / Roy Brooks – 드럼

Art Blakey와 The Jazz Messengers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콘텐트를 만들었던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Horace Silver). 작품마다 베이스와 드럼이 바뀌는 경우는 있었어도, 1959년부터 63년까지 Blue Mitchell과 Junior Cook은 고정 세션으로 활약하였다. 팀 호레이스 실버는 1961년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재즈 클럽 빌리지 게이트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쳤고, 이는 블루노트 레코즈 음반의 소리를 담당하는 Rudy Van Gelder에 의해 깔끔하게 다듬어진다. 호레이스 실버의 직관적이면서도 컴팩트한 연주는 금관악기와 만나 시종일관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Blue Mitchell과 Junior Cook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생생하면서도 수준 높은 하드 밥 퍼포먼스를 이끌어낸다.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된 두 곡에서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강렬했던 현장에 아련한 흔적 하나를 남긴다.



Doin' Allright - Dexter Gordon / Blue Note No. 4077

1. I Was Doin All Right / 2. You've Changed / 3. For Regulars Only / 4. Society Red / 5. It's You or No One

Members

Dexter Gordon – 테너 색소폰 / Freddie Hubbard – 트럼펫 / Horace Parlan – 피아노 / George Tucker – 베이스 / Al Harewood – 드럼

마약은 재즈 뮤지션들의 커리어,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재즈 씬의 최악의 골칫거리였고, 색소폰 연주자 덱스터 고든(Dexter Gordon) 또한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1950년대를 마약으로 말미암은 수감으로 송두리째 날린 그는, 연주 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1961년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하면서 부활의 씨앗을 심는다. 그중 첫 번째 새싹은 <Doin' Allright>. 앞서 언급하였던 차분하면서도 편곡된 멜로디에 집중하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와 하드 밥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 배치한 구성이 돋보인다. Gershwin 형제의 스탠다드로 인트로를 시작한 그는 이어 읊울한 "You've Changed"에서 이지 리스닝에 가까운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며, 피아노 트리오 또한 반주 형식으로 참여한다. 전형적인 하드 밥 넘버 "For Regulars Only, It's You or No One"를 비롯한 두 보너스 트랙에서는 경쾌한 퍼포먼스와 세션 간 인터플레이를 선보이며 두 가지 매력을 한 앨범에서 감상할 수 있는 덱스터 고든의 재치 또한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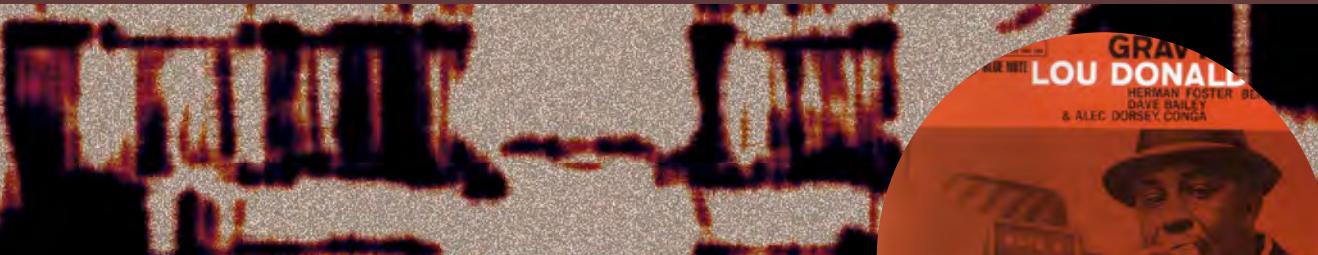
Midnight Special - Jimmy Smith / Blue Note No. 4078

1. Midnight Special / 2. A Subtle One / 3. Jumpin' the Blues / 4. Why Was I Born? / 5. One O'Clock Jump

Members

Jimmy Smith – 오르간 /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 Kenny Burrell – 기타 (1,3,5) / Donald Bailey – 드럼

필수불가결.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소울재즈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지미 스미스(Jimmy Smith)와 색소폰 연주자 Stanley Turrentine, 기타리스트 Kenny Burrell은 블루노트 레코드뿐만 아니라 버브 등 다양한 레이블에서 합을 맞추며 수많은 앨범을 발표했다. 그중 <Midnight Special>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소울 재즈 명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지미 스미스와 사이좋게 한 곡씩 작곡에 참여한 Stanley Turrentine, (전자기 훌씬 인기가 많다.) 세 곡의 스탠다드를 포함하여 소울 재즈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오르간 특유의 배음으로 앨범의 사운드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지미 스미스, 탄력을 유지한 채 돌진하는 Stanley Turrentine, 세련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Kenny Burrell의 합주는 잠들지 않은 자에게는 자정의 설렘을, 잠들려는 사람에게는 꿈의 달콤함을 선물한다.



Gravy Train - Lou Donaldson / Blue Note No. 4079

1. Gravy Train / 2. South of the Border / 3. Polka Dots and Moonbeams / 4. Avalon / 5. Candy / 6. Twist Time / 7. Glory of Love / 8. Gravy Train (Alternate Take) / 9. Glory of Love (Alternate Take)

Members

Lou Donaldson - 알토 색소폰 / Herman Foster - 피아노 / Ben Tucker - 베이스 / Dave Bailey - 드럼 / Alec Dorsey - 콩가 (1, 2 & 4-9)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것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다. 아흔여덟이라는 나이로 올해 생을 마감한 색소폰 연주자 루 도널드슨(Lou Donaldson)은 자신의 동반자나 다름없는 피아니스트 Herman Foster를 비롯하여 콩가 연주자 Alec Dorsey 와 함께 5중주 구성으로 본작을 발표한다. 앨범은 루 도널드슨이 작곡한 "Gravy Train"과 "Twist Time"을 제외하면 전부 스탠다드 넘버이고, 그중 다수가 여행이나 도시에 관련된 트랙이기에 어딘가로 떠날 때 듣기에 제격이다. <Gravy Train>은 과하지도, 그렇다고 쳐지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으며 이는 Herman Foster의 달콤한 연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솔로 파트에서 섬세한 터치를 통해 제 몫을 다 한 그는, 루 도널드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에는 완벽한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왜 그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탠다드를 통한 이지 리스닝, 콩가 연주가 자아내는 특유의 경쾌함까지. 앨범의 제목과는 반대로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Workout - Hank Mobley/ Blue Note No. 4080

1. Workout / 2. Uh Huh / 3. Smokin' / 4.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 5. Greasin' Easy

Members

Hank Mobley — 테너 색소폰 / Grant Green — 기타 / Wynton Kelly — 피아노 / Paul Chambers — 베이스 / Philly Joe Jones — 드럼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하드 밥을 가장 잘 표현한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행크 모블리(Hank Mobley)라고 답하는 사람들 이 꽤 있을 것이다. 그만큼 행크 모블리의 작품은 하드 밥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고, 본작 <Workout> 또한 하드 밥 올스타 라인업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려 하였다. 하지만 세션 멤버를 잘 살펴보면 의문 부호가 생기는데, 왜 기타리스트 Grant Green 이 참여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Grant Green은 오르간 연주자가 아닌 피아노 트리오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선택은 <Workout>의 큰 이점으로 다가왔다. 두 스탠다드를 제외하고 행크 모블리가 작곡한 트랙 아래, 대부분 색소폰 - 기타 - 피아노의 흐름 으로 솔로 연주가 진행되며 각 파트에서 가지각색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Grant Green은 자신의 솔로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며 리드 악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이는 행크 모블리가 구현하려는 진정한 하드 밥이 더욱 수월해지는 요소라 할 수 있겠다.



Dearly Beloved - Stanley Turrentine / Blue Note No. 4081

1. Baia / 2. Wee Hour Theme / 3. My Shining Hour / 4. Troubles of the World / 5. Yesterdays / 6. Dearly Beloved / 7. Nothing Ever Changes My Love for You

Members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 Shirley Scott - 오르간 / Roy Brooks - 드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탠리 터렌타인(Stanley Turrentine)과 오르간 연주자 Shirley Scott은 재즈 씬에서 유명한 부부였고, 비록 소울 재즈의 부흥이 끝나던 시점 그들의 관계도 끝이 났지만 그들의 남긴 음악만큼은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스탠리 터렌타인은 오르간 트리오에서 리드 악기 겸인 기타를 제외함으로써 두 악기가 솔로를 주고받 는 구성으로 콤보를 구성하였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강렬함은 잠시 넣어둔 채 감정적인 깊이를 중심으로 연주를 이어나갔고, Shirley Scott의 오르간도 이에 화답하듯 콤보의 하모니를 풍성하게 감싼다. 감성적인 스탠다드인 마지막 트랙 "Nothing Ever Changes My Love for You"의 제목처럼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Dearly Beloved>에서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애정 이 음악 위를 타고 흐르며 춤추는 영혼으로 표현된다.

리움미술관



이태원로55길

이태원로55길

이태원로55가길

이태원로49길



한남동어린이놀이터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이태원로
이태원로45길

마르디 메크르디 1
여성의류점



이태원로
이태원로42길

성덕주의,
바이닐 영접하다
with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카테고리: Rock > 1990s / Level: 1 / 서가번호: 5 / 청구기호: DE H729.1994

트랙리스트

Side A - 1. Violet / 2. Miss World / 3. Plump / 4. Asking For It / 5. Jennifers Body / 6. Doll Parts

Side B - 1. Credit In The Straight World / 2. Softer. Softest / 3. She Walks On Me / 4. I Think That I Would Be / 5. Gutless / 6. Rock Star



Live Through Like This - Hole

1994.04.12

起

PULP. HIS

카테고리: Rock > 1990s / Level: 1 / 서가번호: 4 / 청구기호: DE P982.1994

트랙리스트

Side A - 1. Joyriders / 2. Lipgloss / 3. Acrylic Afternoon / 4. Have You Seen Her Lately? / 5. Babies / 6. She's A Lady

Side B - 1.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 2. Pink Glove / 3. Someone Like That Moon / 4. David's Last Summer



His N Hers - Pulp

1994.04.18



기회를 얻자마자 앱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색한 음반이다. 바이닐 입문작은 무조건 그런지 룩 명반 중 하나로 하는 것이 로망이었다. 다만, Nirvana는 워낙 한국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영접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은혜로운 형에게 Courtney Love도 못지않게 음악을 잘 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Hole의 최고작으로 결정했다. 이 음반의 가장 큰 매력은 그녀의 분노에 관한 전달력에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읽힌달까. 가령 A1에서 Stop-n-start 전개에 따라 게슴츠레하게 뜨던 퇴폐적인 눈빛과 느슨한 채로 있던 미간 주름이 어떻게 확 바뀔지, 훨씬 생생한 이미지로 상상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타 디스토션의 강렬한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역할은 최고급 음향 수준의 헤드셋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쿠스틱의 비중이 더 큰 A6이나 B2 등에서 충실히 구현된, 예의 전달력과 더불어 그런지의 고유적 특성인 건조한 비애감은 전적으로 아날로그 판의 둪이다.

*감상 팁 - 앞면 커버(모델 렐라니 비숍이 연기한 뒤틀린 프롬 퀸)과 뒷면 커버(유년 시절 코트니 러브)를 비교하면서 A2나 A6을 청취해 보면 작품 전반의 주제의식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INFLUENCERS

<Live Through This>와 함께 필청을 계획한 음반 중 하나다. 미국 그런지를 한 번 들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영국 브릿팝도 패키지로 들어봐야지! 이 역시도 변화구를 주어, Oasis 대신 Pulp로 결정했다. 앞면 커버의 맨 좌측에 있는 자비에 코커 백작의 표독스러운 눈빛이 유달리 영롱해 보였다. 음반 코멘터리가 아주 적절히 설명한 것처럼, Serge Gainsbourg, David Bowie, David Byrne, Elvis Costello가 동시에 들리는 그의 지성적 데카당스 덕분에 영국 억양에 의한 순수한 즐거움으로 공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 히트곡 B5의 아득한 서프 록은 여름은 물론, 의외로 겨울에도 이곳에 방문해 볼 만하도록 해준다. 이곳에 온 대부분의 귀빈들은 물론 넋이 나가게 할 만큼의 음잘알들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뉴웨이브식 브릿팝을 즐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듯했다.

*감상 팁 - 라이브리리에는 디릭스 버전이 소장돼있다. 그러므로 레코딩과 라이브의 현장감이 진국인 LP2의 데모 및 세션 곡들 중 한두 곡이라도 놓치고 지나간다면 아무래도 아쉽지 않겠는가.

카테고리: Soul > 2000s~ / Level: 1 / 서가번호: 2 / 청구기호: CFL 511 2004

트랙리스트

Side A - 1. Prelude / 2. Let's Get Lifted / 3. Used To Love U & Alright
Side B - 1. She Don't Have To Know / 2. Number One / 3. I Can Change
Side C - 1. Ordinary People / 2. Stay With You / 3. Let's Get Lifted Again / 4. So High
Side D - 1. Refugee (When It's Cold Outside) / 2. I Don't Have To Change / 3. Live It Up



Get Lifted - John Legend

2004.12.28

카테고리: Rock > 2000s~ / Level 1 / 서가번호: 3 / 청구기호: DF G795 2004

트랙리스트

Side A - 1. American Idiot / 2. Jesus Of Suburbia II. Jesus Of Suburbia / 3. City Of The Damned / 4. I Don't Care / V. Dearly Beloved / V. Tales Of Another Broken Home
Side B - 1. Holiday / 2. Boulevard Of Broken Dreams / 3. Are We The Walking / 4. St. Jimmy
Side C - 1. Give Me Novacaine / 2. She's A Rebel / 3. Extraordinary Girl / 4. Letterbomb / 4. Wake Up When September Ends
Side D - 1. Homecoming II. The Death Of St. Jimmy / II. East 12TH ST. / III. Nobody Likes You / IV. Rock And Roll Girlfriend / V. We're Coming Home Again / 2. Whispersong



American Idiot - Green Day

2004.09.21



연속으로 록 음반을 듣다가 소울로 급선회한다. 태블릿 바로 뒤편에 컬처 프로젝트 및 슈퍼 콘서트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진열한 코너가 있다. 그중 익숙한 금박지 모서리가 눈에 띄었다. 그리하여 John Legend는 뜻하지 않은 반가운 마음에 집은 것이다. 그 찰나의 내 손가락을 열렬히 칭찬한다. 힙합과 흥크가 적절히 섞여 더 큰 호응을 얻었던 <Get Lifted>의 밀레니엄 네오 소울은 레트로-컨템포러리가 혼합된 인상을 띤 라이브러리의 공간성과 묘하게 곁잘 어울린다. 캘리포니아 밤바다를 달리는 스웩 넘치는 오픈카나 에스프레소 한잔 곁들이기 좋은 카페(마침 1층에 있으니 '이용을 마치고' 여운을 이어가 보길), D2의 가스펠 합창으로 자아내는 연말 홈 파티까지 화룡점정으로 고루 공간을 입히며 즐길 수 있다.

*감상 팁 - 힙합, 흥크, 발라드, 클래식 소울이 사이드별로 고루 있는 종합세트인 만큼, 적절히 배합해 플레이리스트를 짜보길 권한다. 아, 3층에 있는 원어로 된 <Get Lifted> 도서는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좋은 초이스

일단 앨범 커버의 모든 요소에 의해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이다. 이미 지독하리만치 익숙한 커버임에도, 크리스 빌하이머의 상징적인 디자인은 큼지막하고 생생한 질감의 LP 판으로 볼 때 가장 짜릿한 임팩트를 선사한다. 팝 펑크의 영원한 아이콘 Green Day의 정당한 프로파간다는 바로 본작을 통해 완성됐고, 한 손에 움켜쥔 하트 수류탄과 타이틀 폰트, 부클릿에 있는 핸드라이팅 가사, 무엇보다 트랙 전반에 걸친 시네마틱 스토리라인은 아레나와 오페라의 규모를 빌린 펑크와 로큰롤 그자체다. 이 모든 것의 상징성만으로도 LP의 가치를 스트리밍 음원보다 훨씬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래,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만약 LP 이용 갯수가 3개가 아닌 1개였어도, 이용 시간이 30분이 아닌 20분이었어도, 숭고한 대곡 A2와 D1만 풀로 청감할 수 있다면 이미 여기에 올 목적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까짓것 Idiot이 돼보는 거다.

*감상 팁 - 물론 그래도 이 두 가지 대곡을 한 번에 전부 들을 염두가 쉽사리 날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백 커버의 트랙리스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자 숫자를 통해 곡 안의 점진적 서사를 더욱 세세하게 분획화시켰다. 별채식 감상을 요하거든 이를 참고하도록.

PANIC! AT THE DISCO

카테고리: Rock > 2000s~ / Level: 1 / 서거번호: 4 / 칭구기호: DF PI92 2016

트랙리스트

Side A - 1. Victorious / 2. Don't Threaten Me With A Good Time / 3. Hallelujah / 4. Emperor's New Clothes / 5. Death Of A Bachelor / 6. Drury - Genius
Side B - 1. La Devotee / 2. Golden Days / 3. The Good The Bad And The Dirty / 4. House of Memories / 5. Impossible Year



Death of a Bachelor - Panic! At The Disco

2016.01.15



카테고리: Electronic > 1990s / Level: 1 / 서거번호: 2 / 칭구기호: EE B662

1998

트랙리스트

Side A - 1. Inclined Analysis / 2. An Eagle In Your Mind / 3. The Color of the Fire / 4. Telepathic Workshop / 5. Triangles & Rhombuses
Side B - 1. Skysystem / 2. Turquoise Hexagon Sun / 3. Kalri Industries / 4. Biocuna / 5. Rryptiv
Side C - 1. Run the Whirl / 2. Aquarius / 3. Olson
Side D - 1. Pete Standing Alone / 2. Smokes Quantity / 3. Open the Light / 4. One Very Important Thought



Music Has the Right to Children - Boards of Canada

1998.04.20

轉

유치하지만 형에게 불현듯 물어봤다. “형의 취향으로는 Fallout Boy 나 Panic! At The Disco 중에 누가 더 위야(화내지 말길,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다...)?” 이에 ‘폼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을 감안 책정해 Panic! 쪽에 손을 들어줬다. 물론 불과 작년에 해체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잊지 않는 폼을 증명해 준 작품의 여운이 여전히 팝의 세계에 뚝직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본작이 바로 그것. Brendon Urie의 화려한 야심이 우러나온 아레나/스탠더드 팝을 듣고 있자니, 나름의 반성도 해본다. 쉽사리 접할 수 없는 바이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리멸렬한 과거의 유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오늘날에도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은 나오고 있지 않은가. A5 를 들으며 하늘에 계신 Frank Sinatra와 동시대의 지상에 함께 있는 Adam Levine 모두에게 흐뭇한 미소를 띨 수 있는 그의 역작이 이번 하루에 유독 장엄하고 벅차게 들리는구나.

*감상 팁 - 본작에서만큼은 필자보다 형이 훨씬 더 잘 알 테지만, 이에 대해선 음... 물어보질 않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제안할 만한 것이라면, 이곳에 오기 전 미리 패닉 앤 더 디스코의 전작들을 스트리밍 음원으로 가볍게나마 들어보고, 그다음 본작을 아껴뒀다가 이곳에서 청감함으로써 그 일련의 변화를 선명하게 비교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무조건 헤드셋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온몸의 호르몬과 정기를 귀에다가 올인하여 들어보도록.

뮤직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장르음악 중 힙합과 일렉트로니카가 별도의 코너로 구비돼있다. 그래서 후자의 음반 중에서 인생작 1호를 골랐다. 이 작품이 1호인 이유는 다운템포에 대한 사랑도 물론 한몫하지만, 그보다는 본작의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요소에 있다. 본작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독보적인 노스텔지어에 매료됐다. 커버와 부클릿을 보면서 이에 더욱 확신하게 된다. 청색으로 바래진 플라로이드는 옛 파노라마로서, 웬지 저 꼬마들 중 한 명이 꼭 나일 것 같지 않은가? 이는 기억과 망각의 본질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한다. 바래지고 희미해지며, 둥롱함 속에 미학되거나 왜곡된다. 느릿하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료하게, 덧없이 흘러가는 리듬과 샘플 루프로 인해 결코 잊어선 안 될 이곳에서의 하루도 언젠가는 머나먼 기억 저편으로 밀려날 것임에 슬퍼진다. 그러나 짧은 C3을 재생하는 순간, ‘동시에 결국 그 한구석 어딘가에 나지막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온함에도 물들어간다.

*감상 팁 - 필자처럼, 각자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을 회상하고 가족 사진의 구성원 중 한 명에 자신을 대입하며 감상해 보길 권한다. 당연히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을 리 없다. 오히려 가물가물함이 포인트다!

DOOM AND MADLINE
MADVILLAIN

카테고리: Hip Hop > 2000s / Level 1 / 서가번호: 1 / 청구기호: FF M183 2004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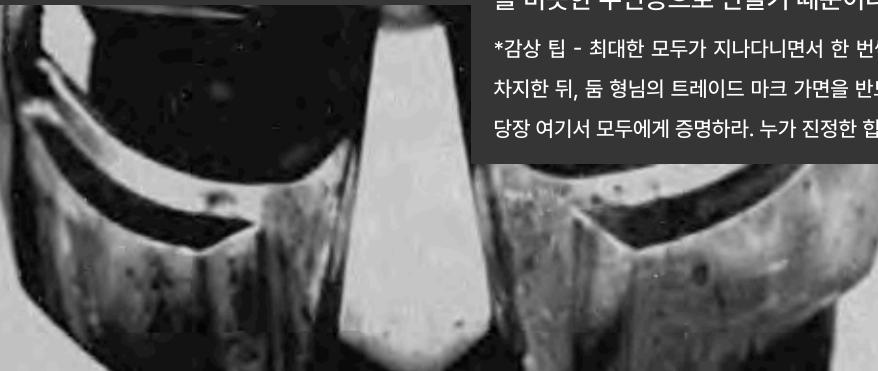
트랙리스트

Side A - 1. The Next Villains / 2. Accordion / 3. Meat Grinder / 4. Bistro / 5. Raid
Side B - 1. American's Most Blunted / 2. Sickfil (Instrumental) / 3. Rainbows / 4. Ouris / 5.
Side C - 1. Scene Two (Voice Skit) / 2. Shadows Of Tomorrow / 3. Operation Lifesaver
AKA Mini Test / 4. Figaro / 5. Hardcore Hustle
Side D - 1. Intro / 2. Fancy Clown / 3. Eye / 4. Supervillain Theme (Instrumental) / 4. All
CAPS / 5. Great Day / 7. Rhinestone Cowboy



Madvillainy - Madvillain

2004.03.23



카테고리: Rock > 1990s / Level 1 / 서가번호: 5 / 청구기호: DE H342 1995

트랙리스트

Side A - 1. To Bring You My Love / 2. Meet Ze Monsta / 3. Working For The Man / 4.
Chmon Billy / 5. Teclio
Side B - 1. Long Snake Moon / 2. Down By The Water / 3. I Think I'm A Mother / 4. Send
His Love To Me / 5. The Dancer



To Bring You My Love - PJ Harvey

1995.02.27



원래는 MF 둘을 인생 래퍼로 1순위로 꼽던 현역 상병 동생을 놀려먹을 겸 고른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필자도 지금 본작을 LP로 들어보지 않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손해를 볼 것 같아 필히 골랐다. 매드립의 앱스트랙트 샘플링은 레코드에서 빛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것은 정답이었다. 누가 더 강력한 빌런인지에 대한 거루기가 히스(hiss) 잡음을 타고 헤드셋 양쪽에 스테레오에 폭탄처럼 전달될 것이다. 특히 LP에 대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을 거둬들이고 듣더라도, 순수한 그 자체의 의미로서 본작은 이곳에서 들었을 때 최고의 농익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정말로 고급스럽다. 테크닉을 넘어 떠오르는 둘의 지성과 초자아가 이 공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필자를 비슷한 주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감상 팁 - 최대한 모두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는 진열대 쪽에 자리를 차지한 뒤, 둘 형님의 트레이드 마크 가면을 반드시 맨 앞에 보이게 하여 듣도록 하라. 당장 여기서 모두에게 증명하라. 누가 진정한 힙합 러버이자 힙스터인지를 말이다.

이렇게 보니 사실상 3회차에서 필자 개인의 취향을 그야말로 유감없이 드러낸 듯하다. 필자는 모든 미국의 여성 뮤지션 중에 PJ Harvey를 압도적으로 가장 사랑한다. 그녀는 카멜레온이다. 어느 작품을 무작위로 골라 들어도 새롭고 극단적으로 다르며, 짜릿하다. 본래 그중에서도 애정하는 작품은 <Stories From The City, Stories From The Sea>지만, 이곳에서는 어째서인지 본작을 더 간절히 찾고 있었다. 지글거리는 인더스트리얼이나 퇴폐적인 트립합에서 물가 위의 흥학처럼 데벨로페를 펼치는 그녀의 연극적인 톤의 정점을 아날로그로 느끼고 싶었다. 백 커버에서 우아한 자태와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눈매가 특히 A4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그런데 젠장, 이용 시간을 막각하고 흠뻑 감흥에 도취돼있다가, 그만 앨범의 단연코 뱅어 B2를 듣지 못하고 종료돼버렸다. 오늘 하루 유일하게 벌어진 최대의 실수다.

*감상 팁 - 필자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대신 듣는다고 생각해 주며, 여러분들만큼은 놓치지 말고 B2 'Down By The Water(이례적으로 제목까지 적었다)'를 꼭 들어주길 바란다. 욕심이지만 그 후기에 대해 기필코 알고 싶다.

카테고리: Korea > 2000s / Level 2 / 서가번호: 2 / 청구기호: FH J034 2019

트랙리스트

Side A - 1. 너였 거를 나의 노래 (Intro) / 2. 두개판 / 3. 조이풀 조마름 / 4. 거울 / 5. 무거 때는요 / 6. Dolmaro
Side B - 1. 전설 / 2. 주자하는 연연들을 위해 / 3. 산나는 꿈 / 4. 나쁜 꿈 / 5. 새파동 새눈 / 6. 꿈결 백화
점점 백



전설 - 잔나비

2019.03.13

結

카테고리: Korea > 1980s / Level 2 / 서가번호: 3 / 청구기호: HD G494 1989

트랙리스트

Face I - 1. 오색연예 / 2. 눈에 오는 날이면 / 3. 춘천가는 가자 / 4. 대장행거
Face II - 1. 동네 / 2. 바가 열 / 3. 나의 그대는 / 4. 꿈



김현철 Vol. 1 - 김현철

1989.08.25

카테고리: Korea > 2000s / Level 2 / 서가번호: 2 / 청구기호: HF C699 2023

트랙리스트

Side A - 1. Rap Concert / 2. Golden Cow / 3. 헤디슨 / 4. Dig Me! / 5. Queen

Side B - 1. 흔한 꿈 / 2. Directors / 3. 그걸儿2 / 4. 1218 / 5. What I Feel

Side C - 1. 늘엔 저들의 도시 / 2. Love Scene / 3. 페도 / 4. Dope (Interlude) / 5. Life is Crazy

Side D - 1. 주소 / 2. Thank You & Fuck You / 3. Overdose / 4. 샘플집



Crumple - 코드 쿤스트

2015.04.28

CODE K
CRUM

STEREO

KIM, HU

카테고리: Korea > 1970s / Level 2 / 서가번호: 2 / 청구기호: HC G494 1973

트랙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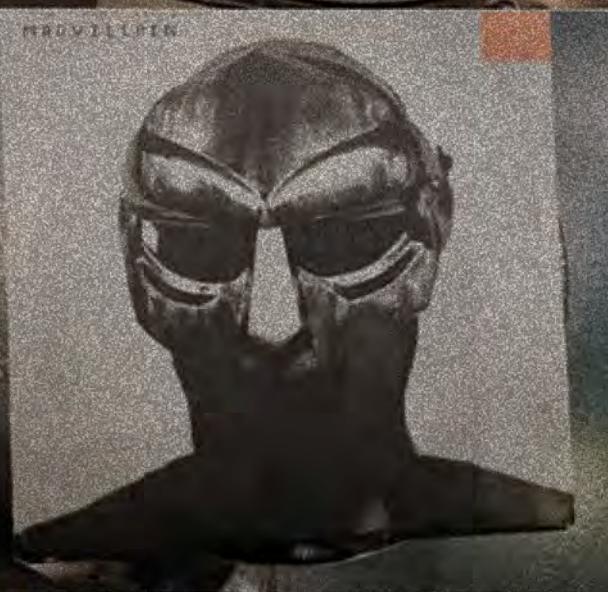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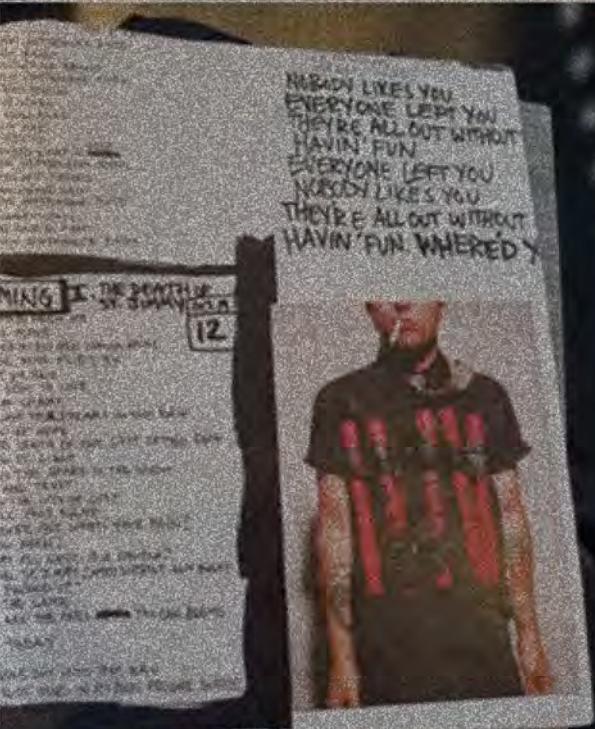
Side 1 - 1. 빛나 / 2. 비빔 / 3. 꿈 / 4. 너도 물개 / 5. 청이가 봄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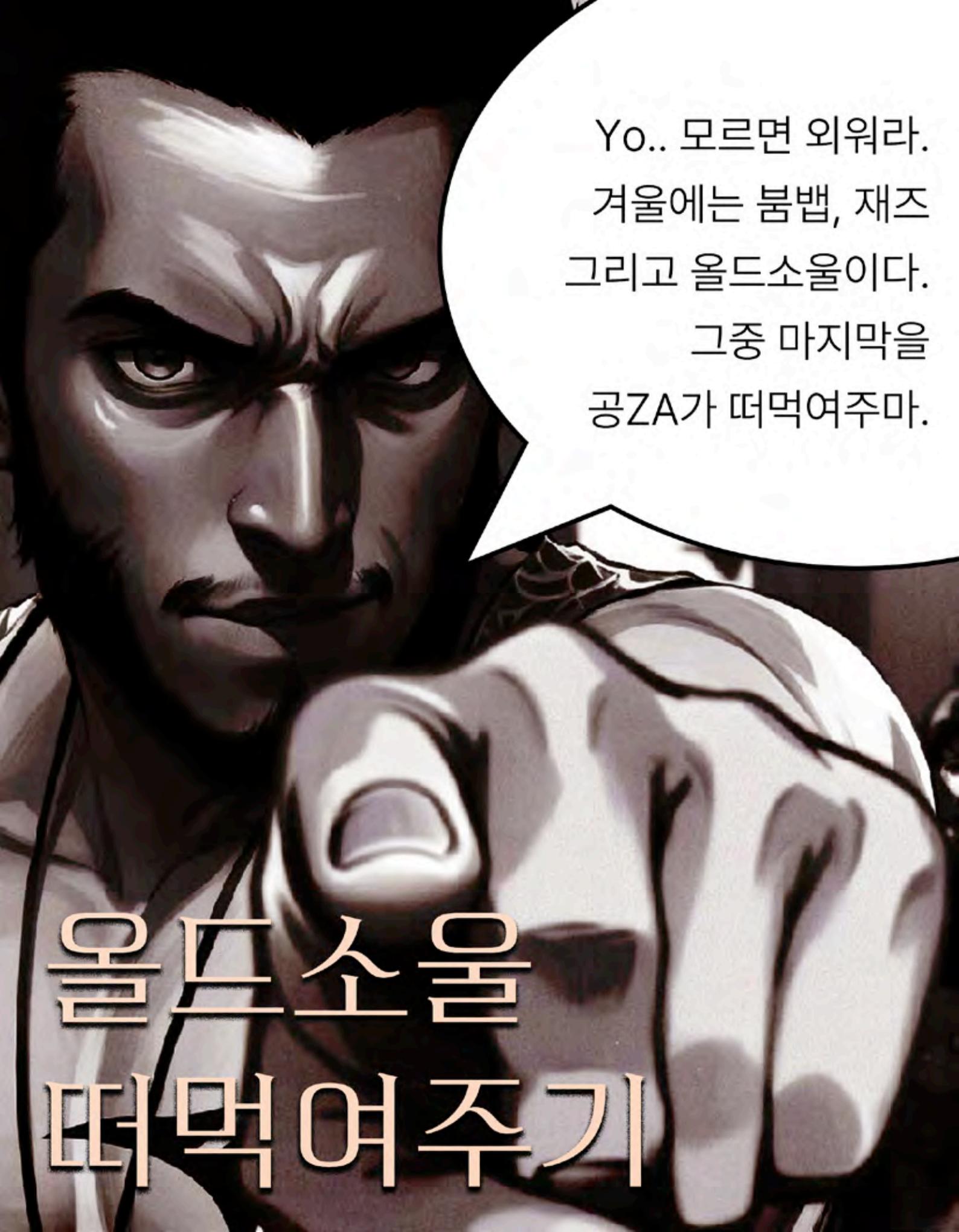
Side 2 - 1. 단산의 꿈 / 2. 여름다운 경산 / 3. 고득한 마음 / 4. 배가 오래 / 5. 거리에서 떠내



Now - 김정미

1973.01.18





Yo.. 모르면 외워라.
겨울에는 봄밥, 재즈
그리고 올드소울이다.
그중 마지막을
공ZA가 떠먹여주마.

올드소울 떠먹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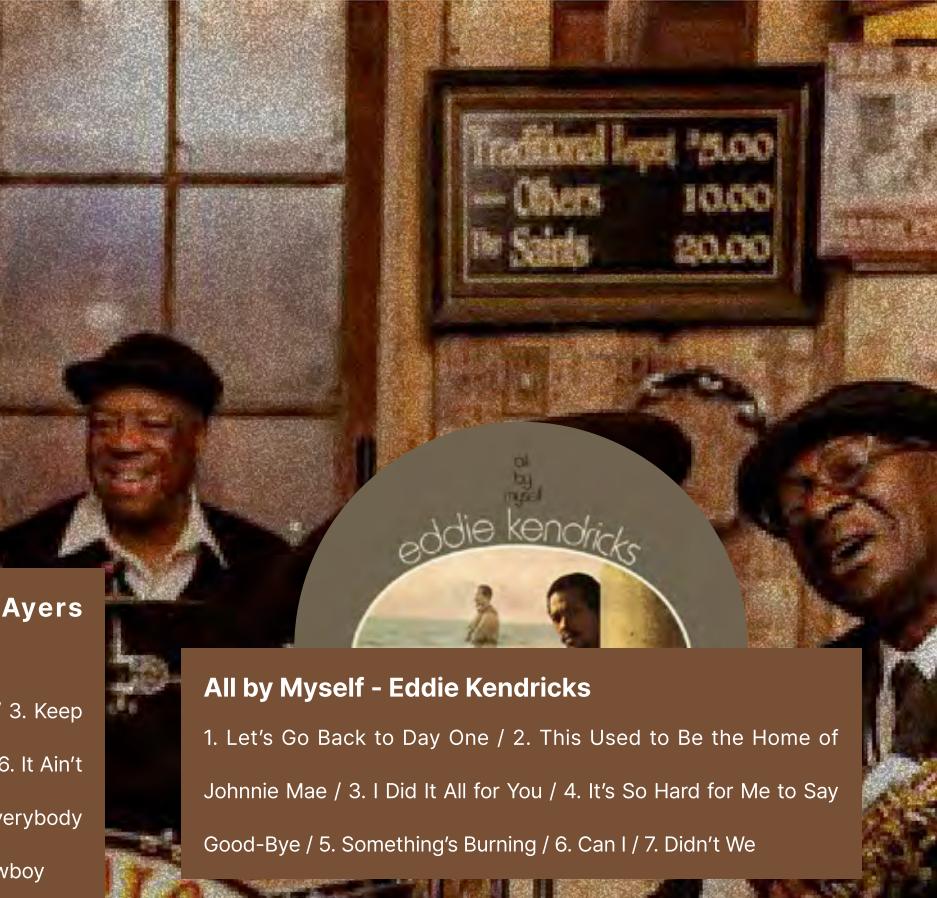


Everybody Loves the Sunshine - Roy Ayers

Ubiquity

1. Hey Uh What You Say Come On / 2. The Golden Rod / 3. Keep On Walking / 4. You and Me My Love / 5. The Third Eye / 6. It Ain't Your Sign It's Your Mind / 7. People and the World / 8. Everybody Loves the Sunshine / 9. Tongue Power / 10. Lonesome Cow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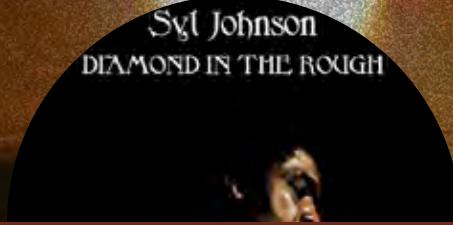
비브라폰의 마술사, 독창적인 사운드의 소울로 잘 알려진 로이 아이어스(Roy Ayers)는 퓨전 재즈, 소울, 흥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Everybody Loves the Sunshine>에서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확하게 각인시켰다. 앨범 내내 연출되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소울풀한 그루브와 멜로디는 편안함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특히 그의 혁신적인 스타일은 동시대 음악적 흐름뿐 아니라 후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힙합과 샘플링 문화에서 빛을 발했다. 손에 꾹기 힘들 정도로 많은 힙합, 알앤비 아티스트들이 로이 아이어스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는데 그의 음악을 재해석하였다. 다양한 분위기와 사운드를 조성하며 스무스 소울과 재즈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음악의 흐름 또한 꿰뚫었던 로이 아이어스의 찬란한 햇빛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밖에 없었다.



All by Myself - Eddie Kendricks

1. Let's Go Back to Day One / 2. This Used to Be the Home of Johnnie Mae / 3. I Did It All for You / 4. It's So Hard for Me to Say Good-Bye / 5. Something's Burning / 6. Can I / 7. Didn't We

모타운 레코즈의 핵심축 중 하나이자, 그룹 알앤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The Temptations. '클래식 파이브' 중 하나였던 에디 켄드릭스(Eddie Kendricks)는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에 금이 가는 기미가 보이자 과감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전환할 기회를 염보았고, 끝내 <All by Myself>를 통해 솔로 데뷔에 이른다. 그룹의 화려한 하모니를 충분히 경험하였던 켄드릭스는 자신의 앨범에서는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모습을 통해 모타운 사운드의 확장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고 한다. 평키하고 리드미컬한 사운드와 더불어 감성적인 발라드를 통해 스펙트럼이 넓은 보컬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는 모타운의 전통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감미롭고 고요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홀로서기를 진행 중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Syl Johnson DIAMOND IN THE ROUGH

Diamond In The Rough - Syl Johnson

1. Let Yourself Go / 2. Don't Do It / 3. I Want To Take You Home / 4. Could I Be Falling In Love / 5. Stuck In Chicago / 6. Diamond In The Rough / 7. Keeping Down Confusion / 8. Please, Don't Give Up On Me / 9. Music To My Ears / 10. I Hear The Love Chimes

현재는 멤피스가 B급 감성을 살린 섬뜩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힙합 장르 음악 중 하나의 근원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한 때는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 주가 되는 소울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멤피스 소울의 특성을 잘 살린 아티스트 실 존슨(Syl Johnson)은 <Diamond in the Rough>에서 본인 색깔을 확립하였다. 같은 레이블 아티스트이자 70년대를 대표하는 Al Green과 유사한 구석이 없진 않았지만, 감정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보컬, 강렬한 리듬과 평키한 그루브 위에서 거칠고 칙칙적으로 다가오는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는다. 더불어 "Could I Be Falling In Love"나 "Please, Don't Give Up On Me"에서는 정직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면을 제시하며 거침 뒤 부드러움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Willie Mitchell의 프로덕션 아래 완성된 실 존슨의 이야기는 거칠고 현실적인 멜로디를 통해 멤피스 소울의 색다른 매력을 잘 보여준다.



Brick - Brick

1. Ain't Gonna' Hurt Nobody / 2. Living From The Mind / 3. Happy / 4. We Don't Wanna' Sit Down (We Wanna' Git Down) / 5. Dusic / 6. Hello / 7. Honey Chile / 8. Fun / 9. Good Morning Sunshine

브릭(Brick)의 셀프 타이틀 앨범은 디스코와 횡크를 결합한 독특한 그루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강렬한 베이스 라인, 타이트한 호른 세션, 해먼드 키보드와 함께 팔세토 보컬을 통해 밴드만의 사운드를 창조하며, 특히 그들이 대표곡 "Ain't Gonna' Hurt Nobody", "Dusic"에서 그들의 매력을 원 없이 발산한다. 브릭은 차트 상위권을 훑는 상업적 성공과 동시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음악을 샘플로 사용하는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평키한 파티 그루브가 인상적인 "We Don't Wanna' Sit Down (We Wanna' Git Down)", 제목처럼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Happy"는 밴드의 음악에 다양성이라는 무기를 쥐여준다. 브릭은 그들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적 색을 통해 당시 씬에서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그루브가 만들어 낸 즐거운 에너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어렵지 않게 전달된다.



Keep On Runnin' - Black Heat

1. Drive My Car / 2. Zimba Ku / 3. Questions & Conclusions / 4. Something Extra / 5. Feel Like a Child / 6. Last Dance / 7. Baby You'll See / 8. Love / 9. Prince Duval / 10. Live Together / 11. Keep On Runnin'

블랙 히트(Black Heat)의 마지막 앨범 <Keep On Runnin'>은 70년대 흥크 사운드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으로, 전설적인 프로듀서 Joel Dorn과 Jimmy Douglass의 지휘 아래 완성되었다.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집대성하였고, 강렬한 에너지와 정교한 프로덕션이 돋보인다. The Beatles의 "Drive My Car"를 흥크 스타일로 재해석한 첫 트랙은 강렬한 리듬과 Ray Thompson의 색소폰 연주가 어우러지며 앨범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Zimba Ku"는 뮤직한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합창으로 밴드 특유의 강렬함을 보여준다. 또한, 경쾌하고 댄서블한 "Last Dance", 부드럽고 감미로운 "Baby You'll See", 그리고 관악기와 드럼이 어우러진 Love는 앨범의 템포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다양한 감정을 선사한다. 한편, "Live Together"와 타이틀곡 "Keep On Runnin'"은 다시금 강렬한 흥크 에너지로 돌아가 앨범을 마무리하며, 특히 후자는 도시적이고 공격적인 사운드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본작은 70년대 흥크 애호가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블랙 히트가 왜 과소평가된 밴드로 기억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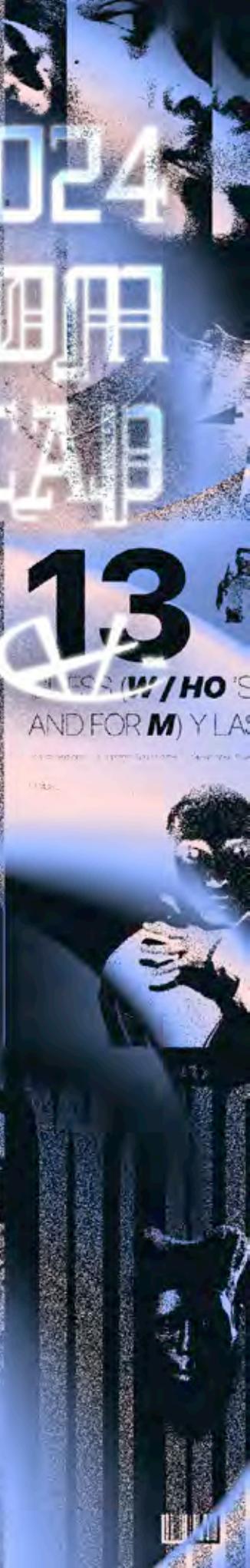
Fred & the New J.B.'s



Breakin' Bread - Fred & The New J.B.'s

1. Breakin' Bread / 2. I Wanna Get Down / 3. Little Boy Black / 4. Rice 'N' Ribs / 5. Rockin' Funky Watergate / 6. Makin' Love / 7. Funky Music Is My Style / 8. Step Child

Fred & The New J.B.'s의 <Breakin' Bread>는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영향이 강한 마지막 J.B.'s 앨범으로, 서던 소울과 흥크를 혼합한 독특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브라운이 프로듀싱하고 공동 작곡한 곡들이 많지만, 프레드 웨슬리(Fred Wesley)는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서던 소울 넘버 타이틀 트랙 "Breakin' Bread", 제임스 브라운 스타일의 강렬한 흥크를 선보이는 "I Wanna Get Down"은 상반된 매력을 선사한다. "Little Boy Black"에서는 브라운의 곡을 재해석하고, "Rice 'N' Ribs"는 흥크와 블루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구성을 지닌다. 또한, 유려한 기타와 느긋한 그루브의 연주곡 "Rockin' Funky Watergate", 재즈와 흥크가 혼합된 실험적인 곡 "Step Child"로 마무리되는 <Breakin' Bread>는 J.B.'s의 흥크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시도한다.



W
Haus
no. 14



1. CHROMAKOPIA - Tyler, The Creator

2024.10.28 / ryuzimoto

1. St. Chroma (feat. Daniel Caesar) / 2. Rah Tah Tah / 3. Noid / 4. Darling, I (feat. Teezo Touchdown) / 5. Hey Jane / 6. I Killed You / 7. Judge Judy / 8. Sticky (feat. GloRilla, Sexyy Red & Lil Wayne) / 9. Take Your Mask Off (feat. Daniel Caesar & LaToiya Williams) / 10. Tomorrow / 11. Thought I Was Dead (feat. ScHoolboy Q & Santigold) / 12. Like Him (feat. Lola Young) / 13. Balloon (feat. DoeChii) / 14. I Hope You Find Your Way Home

책임져야 하는 가족, 자아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압박까지. 이 모든 무게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에게 끝 없이 펼쳐진 황야와도 같다. 그 벌판을 넘나드는 여정을 타일러는 지금까지 다양한 페르소나로 변모하여 투쟁했다. 하지만 이번 <CHROMAKOPIA>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춰 이중성이 다분한 페르소나를 뒤로 하고 본인만의 채도를 더욱 더 뚜렷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진실된 이야기를 선택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또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동시에 가면을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벗어던지며 동시에 스스로 성숙해져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은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전환점이다. 전작들보다 프로덕션적인 측면은 아쉬울지 몰라도 앨범의 콘셉트와 담겨진 진솔한 서사를 풀어내 전달하는 과정은 영민하고 지극히 세련됐다.

어두운 흙빛을 지나, 지독한 콘셉트에서 느껴지는 초록빛은 성숙함의 방증이다



2. NO HANDS - Joey Valence & Brae

2024.06.07 / moogsik

1. BUSSIT / 2. PACKAPUNCH (feat. Danny Brown) / 3. NO HANDS (feat. Z-Trip) / 4. LIKE A PUNK / 5. WHERE U FROM / 6. INTERMISSION 2 / 7. THE BADDEST / 8. OK / 9. DOUGHBOY (feat. Terror Reid) / 10. WHAT U NEED / 11. JOHN CENA / 12. OMNITRIX

윌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던가, 돌이켜보면 <PUNK TACTICS>부터 심상치 않았다. 두 백인 청년에게서 훌러나오는 진한 올드 스쿨 바이브로 강렬한 첫인상을 새긴 후 내놓은 <NO HANDS>는 특유의 날것 같은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한결 정제된 사운드가 돋보인다. 하드코어 힙합으로 본연의 멋을 보여주는 한편 Danny Brown을 불러낸 묵직한 뮤비("PACKAPUNCH")부터 클럽 툰("WHAT U NEED")에 샘플 중심의 마지막 한 방("OMNITRIX")까지, 그야말로 순수한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한 종합 세트다. 더욱 다채로운 색깔을 펼쳐낸 디렉스 버전까지 경험한다면 이들이 결코 한철 장사를 노리고 진입한 뜻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투박함 속 담긴 진심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으리라. 당신이 그 시절을 추억하는 오랜 힙합 팬이든, 고자극에 익숙한 뉴비든 망설이지 말고 이 앨범을 재생하라. 그러면 곧장 경쾌한 춤판에 빠져들 테니!

아직도 이들을 한철 장사 유튜버라 생각하는가



3. King of the Mischievous South Vol. 2 - Denzel Curry

2024.07.19 / moogsick

1. KOTMS II INTRO with Kingpin Skinny Pimp / 2. ULTRA SHXT with Key Nyata / 3. SET IT with Maxo Kream / 4. HOT ONE with TiaCorine & A\$AP Ferg / 5. BLACK FLAG FREESTYLE with That Mexican OT / 6. HEADCRACK INTERLUDE with Kingpin Skinny Pimp / 7. G'Z UP with 2 Chainz & Mike Dimes / 8. LUNATIC INTERLUDE with Kingpin Skinny Pimp / 9. SKED with Kenny Mason & Project Pat / 10. CHOOSE WISELY INTERMISSION with Kingpin Skinny Pimp / 11. COLE PIMP with Ty Dolla \$ign & Juicy J / 12. WISHLIST with Armani White / 13. HIT THE FLOOR with Ski Mask the Slump God / 14. HOODLUMZ with PlayThatBoiZay & A\$AP Rocky / 15. KOTMS II OUTRO with Kingpin Skinny Pimp

Denzel Curry(덴젤 커리)는 항상 새롭게 알을 깨고 나오는 아티스트다. <TA13OO> 후 벌인 굿판이 <ZUU> 였다면 <Melt My Eyez See Your Future> 속 고뇌의 해소는 본작으로 이어진다. Juicy J, Project Pat과 Armani White, A\$AP Rocky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이가 그 말고 또 있을까. Kingpin Skinny Pimp의 인터루드와 멤피스를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완성한 태피스트리는 고향 플로리다의 형상을 그려낸다. 올해를 상징하는 뱅어 "ULTRA SXIT", "HOT ONE"으로 대표되는 압도적 에너지는 남부를 향한 폭주에 동력원이 되어 준다. 무서우리만치 쇄도하는 파괴력, 순수한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랩 뮤직, 서던 힙합의 정신 계승까지, 이 모든 것이 <King of the Mischievous South Vol. 2>에 존재한다.

전설과 신예를 모두 그려모은 2020s 멤피스



4. #RICHAXXHAITIAN - Mach-Hommy

2024.05.17 / 온암

1. (...) / 2. ANTONOMASIA / 3. POLITickle / 4. SONJE / 5. PADON / 6. EMPTY SPACES / 7. SUR LE PONT d'AVIGNON (Reperation #1) / 8. XEROX CLAT / 9. GORGON ZOE LAN / 10. THE SERPENT AND THE RAINBOW / 11. COPY COLD / 12. #RICHAXXHAITIAN / 13. LON LON / 14. AUX PON PARFUMS / 15. SAME 24 / 16. GUGGENHEIM JEUNE / 17. HOLY_

"Mach-Hommy is the icon and end quote." 아이티, 완벽한 익명성, 앱스트랙 힙합, 마크 호미(Mach-Hommy)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정확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는가? 신비주의와 하이엔드, 자국 문화 기반의 독창성을 앞세운 그의 전략은 문외한들에겐 신선함을, 전문가들에겐 경외감을 초래케 하며 하나의 컬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아이티 4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된 <#RICHAXXHAITIAN>은 경이로울 정도로 미세한 척도에서 변화를 주고 발전시키며 그를 상징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등극했다. Roc Marciano, Conductor Williams, Black Thought, KAYTRANADA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대담함은 당연히도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고급스러운 프로덕션 조성 능력에 기반한다. 사실, 이제 이 전설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요인해보인다.

아이콘으로 거듭난 이 괴악스러운 아이티 래퍼의 음반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5. Dark Times - Vince Staples

2024.05.24 / denim

1. Close Your Eyes and Swing / 2. Black&Blue / 3. Government Cheese / 4. Children's Song / 5. Shame On The Devil / 6. Étouffée / 7. Liars / 8. Justin / 9. "Radio" / 10. Nothing Matters / 11. Little Homies / 12. Freeman / 13. Why Won't the Sun Come Out?

정규 6집 <Dark Times>로 돌아온 빈스 스테이플스(Vince Staples)에게는 더 이상 초창기의 야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를 넘어 극도의 피곤함이 서려 있으며, 세상에 어떤 기대도 없는 듯한 시선이 느껴질 뿐이다. 때문에 <Big Fish Theory>나 <FM!>으로 스테이플스를 기억하는 일부는 그의 최근작을 두고 지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차별과 폭력의 대물림에 매일 같이 지인을 잃어온 그에게 더는 ‘뱅어’ 따위를 만들 힘이 남아 있지 않다. 구제불가의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대형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은 래퍼로서의 삶을 병행하기에도 그에겐 벽차기 때문이다. 결국 폐허 속 홀로 남은 그는 “Freeman”에서 말하듯, ‘난 래퍼로서 성공했고, 할 건 다 했어’라는,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세상과 탐험해 버리고 만다. 처참한 현실을 비추길 바랐으나, 끝내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원망하며 쓰러진 한 인간의 몰락을 그린 <Dark Times>는,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말이 추락의 과정이었음을 드러내는 비극의 최종장이다.

어떻게 정신병이 없는지 신기할 정도로 무서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6. I LAY DOWN MY LIFE FOR YOU - JPEGMAFIA

2024.08.01 / 온암

1. i scream this in the mirror before i interact with anyone / 2. SIN MIEDO / 3. I'll Be Right There / 4. it's dark and hell is hot / 5. New Black History (feat. Vince Staples) / 6. don't rely on other men / 7. vulgar display of power / 8. Exmilitary / 9. JIHAD JOE / 10. JPEGULTRA! / 11. either on or off the drugs / 12. loop it and leave it / 13. Don't Put Anything On the Bible (feat. Buzzy Lee) / 14. i recovered from this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새로운 거성으로 부상한 제이펙마피아(JPEGMAFIA)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결코 정체나 담습을 택한 적이 없다. 설령 감속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파격적인 청각적 질감과 전개의 음악을 가져왔다. <I LAY DOWN MY LIFE FOR YOU>는 후자에 해당한다. 적어도 2008년부터 다 큰 남자들을 울려온 이 급진주의자의 저력이 어디 가지 않는지, 2020년대의 최고로 기억되는 전작들의 후광에도 불구하고 본작은 여전히 강력하며 더 대중적이기까지 하다. 샘플과 음향 원소의 아마추어 권위자, 그의 탐식안은 더욱 괴기해지고 그의 추구미는 더욱 말초적으로 변해간다는 편견이 채 자리잡기도 전 제이펙마피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음반을 인도한다. 가히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한 향락과 혼돈부터 자전적이고 종교적인 출구로 갈무리되기까지, 폐기의 음악은 여전히 예상을 빗나가기만 한다.

신선함이 정체성인 아티스트가 매너리즘에 빠진다 한들, 여전히 충격적이다



7. Samurai - Lupe Fiasco

2024.06.28 / SRUKSAN

1. Samurai / 2. Mumble Rap / 3. Cake / 4. Palaces / 5. No. 1 Headband / 6. Bigfoot / 7. Outside / 8. Til Eternity

기본만 해도 이미 날고 기는 래퍼들을 반 이상 제치고 들어가는, 루페 피아스코(Lupe Fiasco)의 실력 남발이다. 더 이상 덜어내고, 더 해낼 여지가 없는 앨범의 프로덕션은 약간의 틈새도 허용하지 않아, 소정의 서러움까지 들 정도이다. 전작에서 합을 맞쳤던 프로듀서, Soundtrakk과의 조화가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이다. 그가 본작에서 밟는 여정은 그를 고독하면서도 자적(自適)한 지존(至尊)으로 보이게 한다. 이 역할에 걸맞게도 앨범 내내 이 사무라이의 그저 주어진 칼을 대차게 휘두를 뿐, 과욕을 부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관조적 시선으로 힙합이란 장르, 문화가 지닌 무언가에 관해 깊이 고찰한 래퍼의 9번째 스튜디오 앨범. 베테랑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물임과 동시에, 힙합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정갈한 함의. 올해 전형적인 앨범이 범람했던 가운데, <Samurai>는 그 기본마저 충실히 해내면서 나름의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진심 어린 루페 피아스코의 자화상이다.

기본만 해도 반 이상은 제꾼다는 옛 어른들의 말, 틀린 게 하나 없다.



8. COLD VISIONS - Bladee

2024.06.28 / blvckmvter

1. PARANOIA INTRO / 2. WODRAINER / 3. YUNG SHERMAN (feat. Yung Sherman) / 4. FLATLIN / 5. ONE SECOND (feat. Yung Lean) / 6. SAD MEAL / 7. FUN FACT (feat. Yung Lean) / 8. ONLY GOD IS MADE PERFECT / 9. DON'T WANNA HANG OUT / 10. I DON'T LIKE PEOPLE (WHITEARMOR INTERLUDE) [feat. Whitearmor] / 11. I DON'T LIKE PEOPLE (feat. Yung Lean) / 12. END OF THE ROAD BOYZ / 13. D.O.A with Skrillex / 14. DON'T DO DRUGZ / 15. LOWS PARTLYY / 16. SO COLD INTERLUDE / 17. MESSAGE TO MYSELF / 18. TERRIBLE EXCELLENCE (feat. Yung Lean) / 19. RED CROSS / 20. LUCKY LUKE (feat. Thaiboy Digital & Yung Lean) / 21. RIVER FLOWS IN YOU / 22. KING NOTHINGG / 23. BAD 4 BUSINES / 24. OTHERSIDE (feat. Sickboyrari) / 25. NORMAL / 26. FLEXING AND FINESSING / 27. PM2 / 28. FALSE / 29. CAN'T END ON A LOSS (OUTRO) / 30. COLD VISIONS (OUTRO 2) [feat. Ecco2k]

기괴한 앨범커버, 조악한 미감, 저지능 플로우, 우리 할머니가 더 잘할 것 같은 랩. Bladee (이하 블레이드), Yung Lean, Ecco2k, Whitearmor, Thaiboy Digital, F1LTHY, Working on Dying. 한 시간이 넘는 블레이드의 첫 레이지 앨범 속, Drain Gang의 지난 10년이 담겨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드랍된, 과거 영광의 요소들을 모은 <Cold Visions>는, 그 이름답게 미래를 향한 비전 또한 제시한다. 레이지는 어떻게 자가복제를 탈피해야 할까. 드레인갱은 어떻게 우울한 10대 그 이상을 타겟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의 청사진의 이름은, <Cold Visions>.

차갑고, 잔인하고, 기괴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9. BLUE LIPS - ScHoolboy Q

2024.03.01 / 온암

1. Funny Guy / 2. Pop (feat. Rico Nasty) / 3. THank god 4 me / 4. Blueslides / 5. Yeern 101 / 6. Love Birds (feat. Devin Malik, Lance Skiiwalker) / 7. Movie (feat. Az Chike) / 8. Cooties / 9. oHio (feat. Freddie Gibbs) / 10. Foux (feat. Ab-Soul) / 11. First / 12. NuNu / 13. Back n Love (feat. Devin Malik) / 14. Lost Times (feat. Jozzy) / 15. Germany '86 / 16. Time Killers / 17. Pig Feet (feat. Childish Major) / 18. Smile

스쿨보이 큐(ScHoolboy Q)가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남자는 흰 셔츠와 푸른 모나코 캡을 놀러쓰고 있다. 현대 서부 갱스터 힙합의 상징이라 칭해지는 이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화된 정신, 수많은 블루스와 소울 샘플, 그리고 여전한 가공할 랩 스킬이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계산된 혼돈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큐는 대립상 구조를 기반으로 음반의 주제의식을 확산한다. 그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여겨졌던 분산을 예술적으로 전환한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뚜렷한 음악적 비전만으로 이 앨범을 그 어느 작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청각적 체험으로 격상시켰다는 사실이다. 레퍼런스를 채 잡아내기도 전에 <BLUE LIPS>는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역동성을 통제하는 스쿨보이 큐의 걸출한 응집력으로 아찔하게 구심점을 유지해낸다.

산해한 블루스, 여성의 잔존, 회고와 대조, 그것을 총망라하는 최고의 퍼포머



10. Please Don't Cry - Rapsody

2024.05.17 / 자카

1. She's Expecting You (feat. Phylicia Rashad) / 2. Marlanna / 3. Asteroids (feat. Hit-Boy) / 4. Look What You've Done / 5. DND (It's Not Personal) (Ft. Bee-B) / 6. Black Popstar (Ft. DIXSON) / 7. Stand Tall / 8. That One Time / 9. 3:AM (Ft. Erykah Badu) / 10. Loose Rocks (Ft. Alex Isley) / 11. Diary of a Mad Bitch (Ft. Bibi Bourelly) / 12. Never Enough (Ft. Keznamdi & Nicole Bus) / 13. He Shot Me / 14. God's Light / 15. Back in My Bag / 16. Niko's Interlude (Ft. Niko Brim) / 17. Raw (Ft. Lil Wayne & Niko Brim) / 18. Lonely Women / 19. A Ballad for Homegirls (Ft. Baby Tate) / 20. Please Don't Cry Interlude (Ft. Phylicia Rashad) / 21. Faith / 22. Forget Me Not (Ft. Amber Navran & Phylicia Rashad)

랩소디(Rapsody)가 2019년 <Eve>에서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찬미하며 견고한 주제 의식을 선보였었다면, 새로운 앨범에서 그녀는 그 틀을 깨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이른다. 배우 Phylicia Rashad와의 가상 상담 세션이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랩소디는 자신의 약점을 꺼내 보이며 청자를 유혹한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Loose Rocks", 성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는 내용의 "3:AM", 날카로운 언어유희와 플로우를 선보이는 "Back In My Bag" 등 다양한 트랙들 속에서 랩소디는 고통과 배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기 내면과 갈등을 음악으로써 풀어낸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다채로운 시도를 보여주는데, 그녀는 본작에서 R&B, 트랩, 레게,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펼친다. 그녀의 한계를 또 한 번 깨부수고, 그 어떠한 틀에도 얹매이지 않은 채로 랩소디만의 또 다른 세계를 완성한 작품이다.

언제는 올지 말더라더니, 이런 멋진 모순이 있나



11. 2093 - Yeat

2024.02.16 / SONGCHICO

1. Psycho CEO
2. Power Trip
3. Breathe
4. Morë
5. Bought The Earth
6. Nothing Changë
7. U Should Know
8. Lyfestyle
9. ILUV
10. Tell më
11. Shade
12. Keep Pushin
13. Riot & Set it off
14. Team ceo
15. 2093
16. Stand On It
17. Familia
18. Mr. Inbetweenit
19. Psychocainë
20. Run Thëy Mouth
21. If We Being Rëal
22. 1093

레이지하면 어떤 장소와 분위기가 연상되는가? 시끄러운 클럽?, 눈부시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광란의 파티?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이트(Yeat)의 '미래일기'는 그 누구도 레이지에게 기대치 못했던 모습이었다. 본작은 낮은 피치의 신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며 레이지를 해체적 클럽, 마이애미 베이스 등 댄스 장르의 영역까지 확장했다. 이 확장된 사운드와 함께 '미치광이 사장님'이 된 이트는 마음껏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에 이르렀다. 이 아무 말은 놀랍게도 어둡고 쓸쓸한 레이지와 페어링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끝까지 감상한 모두는 이트에게 한방 먹게 된 셈이다. 고작 '아무 말이나 뱉어대는 레이지 EDM'으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다가올 그 미래를 두려워하게 됐으니.

시끄러운 클럽보단 황폐화된 도시를 연상케 하는 유일무이한 레이지



12. Almighty So 2 - Chief Keef

2024.05.10 / SONGCHICO

1. Almighty (Intro)
2. Neph Nem (Ft. Ballout & G Herbo)
3. Treat Myself
4. Jesus Skit
5. Jesus (Ft. Lil Gnar)
6. Too Trim Lyrics
7. Runner Lyrics
8. Banded Up (Ft. Tierra Whack)
9. Grape Trees (Ft. Sexyy Red)
10. 1,2,3
11. Drifting Away
12. Never Fly Here (Ft. Quavo)
13. Prince Charming
14. Believe
15. Tony Montana Flow
16. I'm Tryna Sleep

치프 키프(Chief Keef)의 음악은 단순하다. 잘하는 류의 비트 위에서 늘 하던 랩을 뱉는다. 아니, 소리친다. 그럼에도 늘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는 11년 만에 등장한 <Almighty So>의 연작, <Almighty So 2>에서도 통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발전점은 명확하다. 치프 키프는 모든 곡에 프로듀서로써 이름을 올렸고 뱅어와 완급조절을 위한 트랙이 모두 제 역할을 하며 '프로듀서 치프 키프'는 본작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기믹 수행 능력도 더욱 성장시켰다. 자신을 따라하는 래퍼들에 지쳐서 화를 냈던 철부지는 이제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는 베테랑의 면모를 보이며 이제는 캡스터를 넘어, 마피아의 멋을 살리기도 했다. <Almighty So 2>는 단순한 뱅어 테이프로써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지만 치프 키프의 발전을 중점으로 본다면, 재미가 배가 된다.

전지전능하신 침신이 손수 어루만지신 올해 최고의 뱅어 모음집



13. Marciology - Roc Marciano

2024.03.29 / 은암

1. Marciology
2. Goyard God
3. Gold Crossbow
4. True Love
5. BeBe's Kids
6. Bad JuJu
7. Tapeworm
8. Killin' Spree
9. Went Diamond
10. Higher Self
11. LeFlair
12. On The Run
13. Larry Bird
14. Floxxx

거리의 모두가 그의 유산 위에서 황금 체인을 훔들고 있을 때, 언더그라운드의 대부분은 조용히 시가를 꼬나물며 독창적인 서체를 개발해나갔다. *The Alchemist*라는 천재와 공존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관능적 우아함까지 느껴지는 락 마르시아노(Roc Marciano)의 연금술은 냉혹할 만큼 과시적인 그의 리릭시즘이 동일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브라운관에서 치직거리는 70년대 느와르 시네마를 틀며 거리의 영령과 대화를 나눈지도 어언 10년이 넘어가는 때에, 마르시아노라는 남자는 그 자신의 세계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외압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에 그의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고, 그의 음악은 해가 지날수록 날카로워짐과 동시에 기품을 갖추게 되었다. <Marciology>는 그 정점에 해당한다.

살벌한 마피오소가 명품으로 거듭나고, 이내 하나의 학문으로 거듭나는 순간



14. The Auditorium Vol. 1 - Common & Pete Rock

2024.07.12 / 공ZA

1. Dreamin'
2. Chi-Town Do It
3. This Man
4. We're On Our Way
5. Fortunate
6. So Many People (feat. Bilal)
7. A GOD (There Is) (feat. Jennifer Hudson)
8. Stellar
9. Lonesome
10. All Kind Of Ideas
11. When The Sun Shines Again (feat. Posdnuos)
12. Everything's So Grand (feat. PJ)
13. Now And Then
14. Outro

Pete Rock과 Common의 합작 발매 소식은 90년대 황금기 애호가들의 피가 다시 들끓을 만한 소식이었다. "Wise Up", "Dreamin'" 등 그들이 먼저 공개한 카드들이 너무 강력했던 탓인지, <The Auditorium Vol. 1>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선을 택한 것에 가까운 앨범이었다. 하지만 커다란 소나무에서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지 않더라도 언제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듯, 두 거목 또한 뿌리 내린 자리에서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시즌 또한 기다려봄 직하다.

국밥 두 그릇을 먹은 듯한 포만감. 하지만 깍두기를 안 먹은 느낌



15. The Thief Next to Jesus - Ka

2024.08.19 / SRUKSAN

1. Bread Wine Body Blood / 2. Beautiful / 3. Tested Testimony / 4. Borrowed Time / 5. Collection Plate / 6. Broken Rose Window / 7. God Undefeated / 8. Soul and Spirit / 9. Lord Have Mercy / 10. Such Devotion / 11. Cross You Bear / 12. Fragile Faith / 13. Hymn and I / 14. True Holy Water

'내가 떠날 때 그들이 슬퍼하고, 내가 남긴 흔적이 아름답길 기도해.'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래퍼, 카(Ka)의 유작이 된 <The Thief Next to Jesus>는 믿음·소망·사랑의 가치를 메마른 목소리로 설파한다. '흑인들은 비록 노예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버지니아 의회의 선언은 본작에서 카가 느끼는 괴리감의 의미를 다방면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의 주린 배와 목은 포도주로 적셔지지 않는다. 아무리 구원을 부르짖는다 해도, 부스러기라도 긁어 잡을 수 없는 개떡 같은 현실은 점차 그를 회의적으로 변하게 한다. 그럼에도 카는 신의 끝없는 침묵 속, 발만 동동 구르며 '자비'라 불리는 물질의 봄비만을 청하는 흑인들에게 팔 뻗어 설교한다. 여전히 노예나 다름 없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자고,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믿음으로 움직이자고. 배우자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넓게는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카는 예수의 왼 편에 매달린 도둑이었을까, 오른편에 매달린 도둑이었을까?

휘발된 제시어들을 한 데 모아 늘어뜨려 놓기만 해도, 추종할 수 밖에 없는



16. New World Depression - \$uicideboy\$

2024.06.14 / b1vckmvtter

1. Lone Wolf Hysteria / 2. Mental Clarity Is a Luxury I Can't Afford / 3. The Thin Grey Line / 4. Thorns / 5. Misery in Waking Hours / 6. Burgundy / 7. Transgressions / 8. Are You Going to See the Rose in the Vase, or the Dust on the Table / 9. All of My Problems Always Involve Me / 10.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for \$9.99 a Month / 11. Drag 'Em to the River (Totalitarian Remix) / 12. Us Vs. Them / 13. Kill Yourself V

모든 장르가 그러하듯 멤피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꾀해왔다. 호러코어와 풍크 등 상이한 장르들과 만나며 다양한 결과물을 낳았던 멤피스는, 2024년 덴젤 커리(Denzel Curry)와 \$uicideboy\$라는 두 메이저한 멤피스 아티스트들의 앨범으로 또 한번의 재기를 꾀했다. 신예와 OG들을 아우르며 멤피스의 힙합적 요소에 더 치중한 커리의 앨범과 달리, 사운드클라우드와 우울의 감성을 또다시 멤피스의 접목시킨 <New World Depression>은, 다행히 또 한 번의 자가복제가 되는 길을 피했따. 더욱 다양해진 플로우와 한층 깊어진 가사의 깊이, 비트의 둔탁함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한 새로운 우울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들의 새로운 멤피스는 어디로 향할까



17. WHY LAWD? - NxWorries

2024.06.14 / ryuzimoto

1. ThankU (feat. Dave Chappelle) / 2. 86Sentra / 3. MoveOn / 4. KeepHer (feat. Thundercat) / 5. Distractions / 6. Lookin' / 7. Where I Go (feat. H.E.R.) / 8. Daydreaming / 9. FromHere (feat. Snoop Dogg & October London) / 10. FallThru / 11. Battlefield / 12. HereIAm / 13. OutTheWay (feat. Rae Khalil) / 14. SheUsed / 15. MoreOfIt / 16. NVR.RMX (feat. Charlie Wilson) / 17. DistantSpace / 18. WalkOnBy (feat. Earl Sweatshirt & Rae Khalil) / 19. EvnMore

앨범 <Why Lawd?>는 노워리즈(NxWorries)의 멤버인 앤더슨 팩(Anderson .Paak)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그녀, 즉 전 부인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다시 끔 되뇌어가는 여정이다.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와 갈망, 그리고 공허함을 직면하며 그 모든 것이 얹히는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眞) 의미이다. 같은 멤버이자 조력자인 놀리지(Knxwledge)는 블랙 뮤직을 대표하는 여러 장르들의 정수를 추출해, 사운드에 엔티크한 아우라를 불어넣는다. 이는 앤더슨 팩이 표현하는 감정의 색채를 더욱 뚜렷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그 깊이를 한층 더 강조해준다. <Why Lawd?>는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여정을 담아낸 내러티브이자, 사랑과 상실을 함께 찾아나가는 탐구의 기록이다.

스스로의 아픈 기억을 마주하는 용기에는 블랙뮤직의 깊은 올림이 필요하다



18. Fearless Movement - Kamasi Washington

2024.05.03 / 자카

1. Lesanu / 2. Asha the First (feat. Ras Austin, Taj Austin & Thundercat) / 3. Computer Love (feat. Brandon Coleman, DJ Battlecat & Patrice Quinn) / 4. The Visionary (feat. Terrace Martin) / 5. Get Lit (feat. George Clinton & D Smoke) / 6. Dream State (feat. André 3000) / 7. Together (feat. BJ the Chicago Kid) / 8. The Garden Path / 9. Road to Self (KO) / 10. Interstellar Peace (The Last Stance) / 11. Lines in the Sand / 12. Prologue

카마시 워싱턴(Kamasi Washington)의 <Fearless Movement>가 가진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의 기존 음악 스타일에 고전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를 추가해놓았다는 점이다. 그의 전작들에서는 드물게 등장했던 보컬과 랩의 피처링진들이 이번 앨범에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며 앨범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특히, Thundercat의 소울풀한 보컬과 D Smoke, George Clinton 등의 랩이 가장 두드러진다. 본작은 전반적으로 전자 음악과 재즈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Computer Love”와 같은 서정적인 트랙부터 “Get Lit”과 같은 평키한 트랙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신선한 충격을 전한다. 2024년 최고의 노래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Prologue”의 경우 그가 지금껏 걸어온 모든 발자취들을 집약해놓은,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트랙이다. <Fearless Movement>에서 카마시 워싱턴은 현대 재즈의 경계를 장인의 손길로 힘차게 확장해보이며 여러 오묘한 감정들을 최대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

쉽게 잊혀지지 못할 아름다운 초상화, 왕좌에 올랐어도 그는 여전히 야망을 갖고 있다



19. SCRAPYARD - Quadeca

2024.02.16 / 자카

1. DUSTCUTTER / 2. A LA CARTE (feat. brakence) / 3. PRETTY PRIVILEGE / 4. EASIER / 5. EVEN IF I TRIED / 6. WHAT'S IT TO HIM? / 7. U DON'T KNOW ME LIKE THAT / 8. I MAKE IT LOOK EFFORTLESS / 9. WAY TOO MANY FRIENDS / 10. GUESS WHO? / 11. UNDER MY SKIN / 12. BEING YOURSELF / 13. U TRIED THAT THING WHERE UR HUMAN / 14. GUIDE DOG / 15. TEXAS BLUE (feat. Kevin Abstract)

정규 앨범에 수록되지 못한 트랙들로 이루어져 있는 콰데카(Quadeca)의 믹스테잎 <SCRAPYARD>은 그의 강점이었던 스토리텔링 능력을 독특하고 감각적인 프로덕션으로 보완시킨 신선한 작품이다. 본작은 네오 사이키델리아와 글리치 팝 장르를 기반으로 하여 전작 <I Didn't Mean to Haunt You> 보다 한층 다채로운 사운드스케이프를 로파이한 질감과 함께 추상적이면서도 몰입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 특히 보컬 퍼포먼스의 경우 리버브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여러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동시에 "U TRIED THAT THING WHERE UR HUMAN"과 같은 트랙에서는 그 어떤 가공 작업도 거치지 않은 목소리를 활용하여 큰 인상을 남긴다. 부족한 서사적 연결성을 다양한 프로덕션으로 상쇄시킨 <SCRAPYARD>는 콰데카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티스트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으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한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시켜 준 작품이다.

단순 힙스터들의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라



20. Glimmer of God - Jean Dawson

2024.10.18 / blvckmvttter

1. Dalrin' / 2. Black Sugar / 3. Play Dead / 4. Houston / 5. Paranoid Echo / 6. Die For Me (feat. Lil Yachty) / 7. Slow Heavy Ecstasy / 8. The Boy and The Swan / 9. Muricélagos / 10. You're Bleeding Everywhere / 11. 200 Cigarettes / 12. P4IN with BONES / 13. Bubba / 14. Electric Children / 15. Kollapse

진 도슨 (Jean Dawson), 얼터너티브에서 그의 위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없을 듯하다. <Bad Sports>의 미숙함, <Pixel Bath>의 실험성, <CHAOS NOW*>의 락킹함, 그 사이사이 언제나 스며들어 있던 멜랑콜리함까지. 지난 5년 정도의 커리어를 한 데에 묶어내며 완성도를 잃지 않는 능숙함에서 발견되는 천재성의 광명은 너무나도 뚜렷히 빛나온다. "Houston", "Die For Me (feat. Lil Yachty)", "Slow Heavy Ecstasy", "P4IN with BONES" 등, 어느 하나 비슷한 매력을 가진 것 없는 15곡의 <Glimmer of God>은, 진 도슨이라는 음악인의 완성이며 동시에 가장 빛나을 이정표다.

'Glimmer' 보다는 'Glare'에 가까운

GORAUME MEATIUMS



AND THEY MINE FOR OUR BODIES - Gao the Arsonist

2024.10.18 / 자카

1. PAROUSIA / 2. HORSESHOE / 3. TRENCHFOOT / 4. WITNESS / 5. GUNSLINGER / 6. SHARKFIN / 7. INSOMANIA / 8. RIGHT BETWEEN THE EYES / 9. UNORTHODOX (feat. NotNevi) / 10. TOOTHJAR / 11. FIRMAMENT / 12. CHRONOKILL / 13. DO AS I SAY / 14. PHANTASM

<AND THEY MINE FOR OUR BODIES>에서 가오 더 아서니스트(Gao the Arsonist)는 음악적 실험과 극단적인 우울, 파괴의 조화를 담아내며 청자에게 크나큰 후유증을 남긴다. 본작에서 그는 전작 <FORENSICS>에서 다룬 정체성과 고립감의 메시지를 확장하며, 호러코어와 노이즈를 결합한 공포스러운 프로덕션으로 긴장감과 압박감을 극대화한다. 앨범의 사운드는 불규칙적이며, 또 날 것 그대로의 거친 텍스처를 사용해 혼란과 불안을 강조함과 동시에 멜로디와 리듬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은 그가 의도하려 했던 혼란을 더욱 부각시키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ND THEY MINE FOR OUR BODIES>는 그가 가진 잠재력을 있는 힘껏 보여준 작품이며, 앞으로 그가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닐지 한껏 기대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다.

BADBADMNOTGOOD - Mid Spiral

2024.05.29 / 자카

1. Eyes On Me / 2. Take Me With You / 3. Weird & Wonderful / 4. Mid Spiral / 5. Last Laugh / 6. Your Soul & Mine / 7. Playgroup / 8. Juan's World / 9. Taco Taco / 10. Sétima Regra / 11. Sunday Afternoon's Dream / 12. Rewind Your Mind / 13. First Love / 14. Audacia / 15. Celestial Hands / 16. Ways Of Seeing / 17. White Light



<Mid Spiral>은 배드배드낫굿(BADBADMNOTGOOD)가 2024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일주일 간의 세션을 통해 급하게 제작된 작품이다. 이 때문에 그들이 기존에 보여주었던 정교한 작업이 아닌 지금껏 가장 캐주얼하고 즉흥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은은한 그루브를 힘껏 풍긴다. 총 3개의 EP — <Chaos>, <Order>, <Growth>로 나누어진 본작인 시리즈에선 라틴 음악과 삼바 재즈가, 에서는 랙과 사이키델릭적인 요소를 결합하였고, 시리즈에서는 소울 재즈를 차용하며 다채로운 스타일과 사운드를 선보인다. 은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도 음악적 깊이를 잃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도 매력적이었던 3장의 EP가 뭉쳐져 더욱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정교함보다는 유연한 흐름을 택한 그들은 본작으로 또 한 번 자신들의 뛰어난 연주력과 창의성을 증명해 냈다.



boy - 2hollis

2024.06.07 / denim

1. you once said my name for the first time / 2. two bad / 3. sister / 4. crush / 5. i saw it flash before me / 6. say it / 7. say it again / 8. teenage soldier / 9. lie / 10. promise / 11. 3 / 12. light / 13. mountain

신문, 잡지, 도서 등에서 글씨를 오려 붙여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기법을 '콜라주'라고 부른다. 다양한 소스(source)를 조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2hollis의 <boy>는 음악적 콜라주라고 부를 수 있다. Frank Ocean, Drain Gang, Skrillex, Max Martin 등, 영감의 출처는 다분히 뻔한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놀랍도록 독창적이다. 희미한 오르간을 배경으로 보컬과 화음에 의존하는 전반부에서 폭죽처럼 폭발하는 신디사이저 드랍으로 이어지는 오프닝 트랙 "you once said my name for the first time"을 비롯해, 앨범의 수록곡은 단 한 차례도 하나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운드는 마치 이별을 처음 경험한 남아의 감정 기복을 묘사하는 듯하며, 비로소 청자는 작품명을 이해하게 된다.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려 완성시킨 2hollis 본연의 사운드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boy>는 '나을 건 다 나왔다'는 현 대중음악 시장을 향한 평가에 일침을 가한다: 재탕하고 배낄 바에는,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Endlessness - Nala Sinephro

2024.09.06 / 자카

1. Continuum 1 / 2. Continuum 2 / 3. Continuum 3 / 4. Continuum 4 / 5. Continuum 5 / 6. Continuum 6 / 7. Continuum 7 / 8. Continuum 8 / 9. Continuum 9 / 10. Continuum 10

일렉트로닉 뮤직과 앰비언트, 그리고 재즈를 적절히 섞어낸 Floating Points와 Pharaoh Sanders,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Promises>는 2021년 음악계의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반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발매된 날라 시나프로의 정규 1집 <Space 1.8> 역시 그와 비슷하게 고요한 앰비언트 위에 재즈를 접목한 음악을 선보였다. 약 3년이 지나고 발매된 그녀의 정규 2집 <Endlessness>는 걸으로만 봐서는 전작과 유사하다 보일 수 있겠으나, 고요 속에서 더욱 광활한 공간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며 정교하게 배열된 음들이 귀를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Endlessness>는 시나프라의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증명해낸과 동시에 이를 한데 집약시켜놓은 작품이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장르를 융합해냄과 동시에 그 속에서 균형을 잡을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앨범에서는 이보다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의 미래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Keep Holly alive - Mutant Academy

2024.10.08 / 감상주의

1. Intro / 2. Peace God / 3. Favoritism / 4. Space Time Continuum / 5. Straightback Santiago / 6. Paranoid / 7. Check Ya Source / 8. Rock, Paper, Scissors / 9. Computer Blue / 10. Too Accessible / 11. Fate on My Side / 12. Beam Me Up / 13. Fatherless Flow / 14. Start Prayin' / 15. Scheme Sunday / 16. Liberation (feat. Quelle Chris) / 17. Birthstone / 18. Stay Forever

Outkast보다 Wu-Tang Clan을 더 좋아하는 남부의 힙합 러버들을 환영하라. 빼까뻔쩍한 클럽에서 린을 훌ჭ이는 것보다 그들만의 스튜디오에서 코믹스 잡지를 읽으며 시가를 피우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 단체다. 골든 에라 동부를 향한 그들의 퓨어리즘은 익숙하지만, 역시 아는 맛이 무섭다. 일관된 미학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 무려 아홉 명이나 되는 프로듀서들이 <Keep Holly Alive>에 전부 달라붙었다. 마피오소 카리스마로 무장한 MC 세 명의 논스톱 퍼포먼스 릴레이이는 올해 가장 고급스러운 사이퍼다. 밀도와 테크닉으로 승부하는 이들의 오마카세는 이들을 신예로 착각하고 있는 뉴요커들을 따끔하게 혼쭐낼 수준의 내공이 가득 배어 있다. 몇십 년째 지나치게 한 곳에 고착돼있던 문화가 그들로 하여금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란다. 남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의 뮤턴트 아카데미(Mutant Academy)다.



Liniker - CAJU

2024.08.19 / 자카

1. CAJU / 2. TUDO / 3. VELUDO MARROM / 4. AO TEU LADO (feat. Amaro Freitas & ANAVITÓRIA) / 5. ME AJUDE A SALVAR OS DOMINGOS / 6. NEGONA DOS OLHOS TERRÍVEIS (feat. BaianaSystem) / 7. MAYONGA / 8. PAPO DE EDREDOM (feat. Melly) / 9. POPSTAR / 10. FEBRE / 11. POTE DE OURO (feat. Priscila Senna) / 12. DEIXA ESTAR (feat. Lulu Santos & Pablo Vittar) / 13. SO SPECIAL (feat. Tropkillaz) / 14. TAKE YOUR TIME E RELAXE

리니커(Liniker)가 전작 <Indigo Borboleta Añil>에서 현악을 중심으로 한 바로크 팝을 선보였다면, <CAJU>에서 그녀는 이를 벗어나 더욱 소울풀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로 변화를 꾀한다. 첫 트랙 "CAJU"에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앨범의 포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녀는 이후 "TUDO"에서 삼바 리듬을 차용하기도 하고, "DEIXA ESTAR"에서는 디스코적 요소를 삽입하며, "AO TEU LADO"에서는 장엄한 글램 록 사운드와 풍성한 양상블로 청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는다. 매력으로 뜰뜰 뭉쳐있는 리드 피아노,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리니커의 아찔한 고음은 모든 트랙들에서 빛을 발한다. 브라질 음악의 전통을 완벽하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낸 <CAJU>는 소울, 삼바, 디스코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운드로 가득 차 있는 빼어난 작품이다. 현대 소울 씬에서 리니커만큼 엄청난 보컬 역량과 예술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흔치 않기에, <CAJU>는 리니커가 얼마나 재능 있고 독창적인 아티스트인지에 대한 방증과도 같은 작품이다.



LYFESTYLE - Yeat

2024.10.18 / SONGCHICO

1. GEEK TIMË / 2. STFU / 3. THEY TELL MË / 4. HEARD OF MË / 5. SPEEDBALL / 6. U DONT KNOW LYFE / 7. ORCHESTRATË / 8. BË QUIET / 9. THE COSTËS / 10. GO2WORK / 11. GONE 4 A MIN/ 12. FOREVER AGAIN / 13. ON 1/ 14. FLYTROOP / 15. ELIMINATEË / 16. LYING 5 FUN / 17. NEW HIGH / 18. SO WHAT / 19. LYFESTYLE / 20. GOD TALKIN SHHH / 21. LYFE PARTY / 22. FATEË

<2093>을 통해 고유한 영역을 구축한 이트(Yeat)는 전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작품을 발매했고, 미래가 아닌 현재로 돌아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봤다. 폴리엔비와의 연관성이 남아있던 SlayWorld 시절의 음악부터, 홀로서기에 성공한 시기의 음악, 가장 최근의 <2093>까지 그를 상징하는 다수의 사운드가 한 번씩은 본작에 등장했다. 그가 과거에 머문 것만은 아녔다. '<2093> 이후로 자신의 보컬 활용에 대해 깨달았다.'라고 말했던 그는 뱅어로 남은 다수의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코그래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벌스들을 남겼다.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기 전,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내세운 이트는 올해 레이지 씨의 발매한 최고의 뱅어 테이프를 완성했고, '셀프 트리뷰트' 앨범에서 오히려 향후 행보를 기대케 했다.



The Collective - Kim Gordon

2024.03.08 / denim

1. BYE BYE / 2. The Candy House / 3. I Don't Miss My Mind / 4. I'm A Man / 5. Trophies / 6. It's Dark Inside / 7. Psychedelic Orgasm / 8. Tree House / 9. Shelf Warmer / 10. The Believers / 11. Dream Dollar

인터넷이 낳은 과시적 문화와 인간을 조종하는 절대적 광기에 대한 경고를 빼곡히 적어낸 킴 고든(Kim Gordon)의 작품 <The Collective>. 이를 단순히 '노년기의 수작'으로 치부하기엔 그 음악적 완성도와 주제의식이 상대적으로 짧은 작품들에 비해서도 너무나 위대하다. 인더스트리얼 힙합과 노이즈 록 사이를 외줄 타며 또 한 번 예술의 규격에 도전장을 내미는 고든이지만, 그녀의 목적은 형식을 깨는 데에 있지 않다. 소음에 가까운 질감은 그녀가 트위터에 중독되었던 시절에 체감한 광란을 표현하며, 주로 철없는 장르로 분류되는 트랩의 차용은 맹목적 쾌락에 휩싸인 현세대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 혼돈의 중심에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환멸이 뒤섞인 고든의 냉소가 존재한다. 가상현실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 재앙에 한때 훨씬렸던 본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무책임한 야욕으로부터 안녕을 고하는 염세적인 가사는 무분별적인 비난을 난무하는 여러 동시대의 작품과는 격을 달리한다. 비록 세월에 짊음을 내주었으나, 자아는 빼앗기지 않았음을 알리는 <The Collective>는 장르 불문 올해의 발매작 중 가히 최고의 수준임이 틀림없다.



The New Sound - Geordie Greep

2024.10.04 / ryuzimoto

1. Blues / 2. Terra / 3. Holy, Holy / 4. The New Sound / 5. Walk Up / 6. Through A War / 7. Bongo Season / 8. Motorbike / 9. As If Waltz / 10. The Magician / 11. If You Are But A Dream

브라질의 라틴 리듬을 근간으로 재즈, 블루스, 프로그레시브 록까지 폭넓은 장르를 이질적으로 융합한 독창적인 사운드. 그 위에 펼쳐지는 조르디 그립(Geordie Greep)의 자신감 넘치는 사운드 테크닉은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장르가 어지럽게 뒤섞이고 광기 어린 불협화음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느덧 수많은 감정과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신을 잃어갈 무렵, 어느 순간 전신을 압도하는 묘한 쾌감이 서서히 온몸을 뒤덮는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르디 그립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각 트랙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음반의 서사를 한층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앨범 전반을 관통하는 중심 서사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한 남성의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다룬다. <The New Sound>는 리비도적 에너지와 예술적 창의성이 뒤얽힌 혼돈의 집약체로, 실험적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작품이다.



Two Star & The Dream Police - Mk.Gee

2024.02.09 / 감상주의

1. New Low / 2. How Many Miles / 3. Are You Looking Up / 4. DNM / 5. You Got It / 6. Rylee & I / 7. Candy / 8. I Want / 9. Alesis / 10. Breakthespell / 11. Little Bit More / 12. Dream Police

Bon Iver의 뒤틀린 인디트로니카, Jai Paul의 세심한 아방가르드 팝, Justin Timberlake의 상징적인 팔세토를 일종의 계보인 것처럼 한 데 엮어낸 엠케이 지(MK.Gee). 시종일관 송라이팅은 모호하고 컴포지션은 기이하니, 정돈된 느낌을 일절 거절하는 그의 고집으로부터 영화배우 겸 감독이자 지독한 탐미주의자 Xavier Dolan의 모습까지 겹쳐 보인다. 모든 요소들이 얼터너티브의 극단에 걸쳐 있다. 그의 놀라움은 바로 그 아슬한 외줄타기로부터 자아내는 역설들에 있다. ① 80년대 팝을 향한 사랑, ② 앨범 비주얼과 맞물려 더욱 효과적인 질감 통일, ③ 핵심 정서로의 수렴과 선명한 감동. 덕분에 작품은 과시적이기보다 오히려 수수하고 청렴하며, 친밀하게 느껴진다. 팝 록과 알앤비 사이의 어딘가에서 발굴해낸 그의 복잡한 전위성과 은밀한 인간미로부터 그간 개탄하고 그리워했던 모던 알앤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 - DORIS

2024.07.06 / 감상주의

1. YOUNG HATIAN NIGGA / 2. makeup / 3. Baby reign / 4. Hennessy&CandyCane / 5. if im not back in 5 min, jus wait longer / 6. STRAIGHT FACE / 7. close friends / 8. +2s / 9. BREAKINGSKIN / 10. JOYOUS WHIMSICAL / 11. Overzealous / 12. EARLYGOODBYES / 13. BURNING / 14. Hesi / 15. blown smoke type beat / 16. reservations / 17. 2000shots / 18. winning numbers / 19. in the pits / 20. D.T.Y / 21. kinda sorta / 22. Fav part / 23. rock out / 24. OKAY / 25. turn me up gang / 26. 2 speeds / 27. bricks / 28. ANMWE / 29. why it matter? / 30. strangelove / 31. ur gon hate meee / 32. spirits and funny men / 33. Two Whiskey Sours / 34. smoke clouds so unreal / 35. mybodymysoul / 36. when you wanna put it in a song and it goes... / 37. Kdot rap / 38. KEEEP DIG!!!!!! / 39. NotAnyonesHouse / 40. wedding cake / 41. nike tech / 42. idk / 43. Gs / 44. half n half Arizona / 45. blue dream / 46. kissing / 47. 205 / 48. Jerk / 49. Party 2 / 50. motivator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

트랙 수가 선뜻 부담스럽다고? 러닝타임으로 따지면 보통의 정규 앨범 정도다. 혹시 음악을 라디오로 들던 세대가 여기 아직 있는가? 그렇다면 특히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일 수 있겠다. 드라이브나 노동요를 위해 잠깐 켰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흘려 들으면 된다. 짧은 간격으로 넘어가는 샘플 루프 하나하나가 추억을 선사하는 오르골 같다. 매번 피치가 다른 DORIS의 멜로디컬 랩은 음성변조된 채 저마다의 사연을 직접 전달하는 프로그램 애청자들을 보는 듯하다. 이토록 반갑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트위 팝을 랩으로, 그것도 패키지로 다시 접하게 될 줄이야. 뜻하지 않게 귀중한 시간 여행을 선물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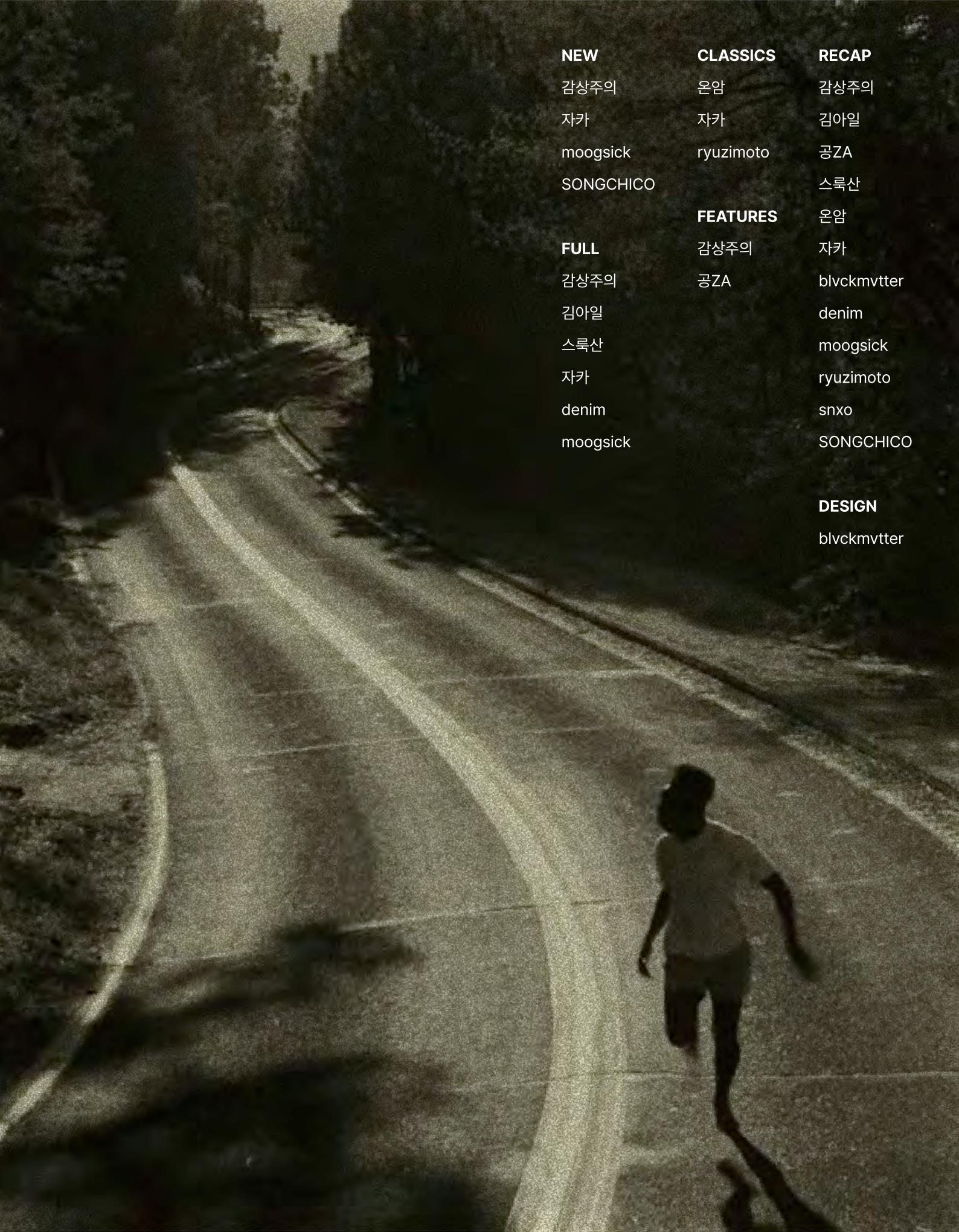
徘徊collection - lilbesh Ramko

2024.09.13 / blvckmvttter

1. Re:Kazing with AssToro / 2. Nichijou:Loopmania / 3. Mokyoubi:Freestyle / 4. うそつき / 5. ヒミツ!!!! / 6. digital:love / 7. haikai:pop



디지코어라는 장르는 그 구분에 있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분명 많은 앨범에 랩이 포함되지만 힙합이라 부르기엔 그 연관성이 상당히 적고, 일렉트로닉이라 부르기엔 트랩과 클라우드 랩 등 모던 힙합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 독특한 경계선적 특징이 'MZ' 음악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디지코어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 엄청난 행운일 것이다. 특유의 '씹덕'스럽기도 한 분위기 덕에 디지코어는 많은 일본 아티스트들이 두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lilbesh ramko*의 <徘徊collection>은, 그 일본 디지코어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앨범 커버에서 풍기는 기괴한 분위기에 겁먹어 무심코 지나가버리지 않기를.

**NEW**

감상주의

자카

moogsick

SONGCHICO

CLASSICS

온암

자카

ryuzimoto

RECAP

감상주의

김아일

공ZA

스룩산

FEATURES

온암

FULL

감상주의

김아일

스룩산

자카

denim

moogsick

감상주의

공ZA

blvckmvttter

denim

moogsick

ryuzimoto

snxo

SONGCHICO

DESIGN

blvckmvttter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mailto:iamwillcox@gmail.com
@iamwillcox

